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1 2016

VOL. 24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Tab S2

— LIVE SUPER LIVE FREE —

SUPER ENTERTAINMENT

QXGA SAMOLED display

SUPER SLIM & LIGHT

Slim (5.6mm) & Light (start from 272 gr)

SUPER PRODUCTIVITY

Octa Core processor & 32GB Memory



start from

RP 5.999.000**

**retail recommended price

PROMO PERIOD



03 October - 13 November 2016

PRIVILEGES*

FREE 1 Month QUOTA data 24GB from IM3 Ooredoo

- Plus quota STREAM ON Spotify & iflix 1GB.
- Plus unlimited Call & SMS.

FREE 3 Months DENS.TV subscriptions

- Enjoy Premium TV Channels and hundred VOD movies in high quality anytime, anywhere.
- Watch   and more channels.

*terms and conditions applied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¹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weet NOVEMBER

- 사은 행사
10월 31일 ~ 11월 13일, 14일간



+

CarloRino
VOUCHER

UP TO IDR 2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CARLORINO 50만 루피아
상품권 증정
※ 여성 개주얼 신규 패션 브랜드

11월 14일 ~ 22일, 9일간



+




UP TO IDR 2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10만 루피아 러블리 크리스마스 상품권 증정
12월 11, 12일 더블 밸류 상품권 증정






- 레고 이벤트
넥소 나이트 런칭쇼
10/31 ~ 11/13 | GF



스카이 점프
“트램폴린”
Fun 아트리움 | 3층
10월 15일 ~ 2017년 1월 8일

롯데 멤버스 회원
10% 할인





UP TO
70%

- 슈즈 & 백 바자
10월 31일 ~ 11월 13일|GF층

 SUPERGA ELLE  melissa. 등

- 퀵실버 | DC | 록시 특별찬스
11월 14일 ~ 12월 2일 | 이벤트 아트리움 | GF층

- 패션 바자
11월 1일 ~ 11월 27일 | 이벤트 아트리움 | GF 층

 VERO MODA  등

飛上

코파 날아 오르다!



제 8 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대한민국 신발산업의 미래!

적도를 통해 세계로 세계로 뻗어 가고있다.

일제 강점기 고난속에서 싹 틔운 선배 신발인들의 혼이
반도를 넘어 대륙을 거쳐 적도에서 그 꽃을 피운다.

적도에서 활짝 핀 한국 신발산업은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다.

지구촌 구석구석 우리의 손길을...

한국의 혼을 심자!



일 시 : 2016년 12월 01일(목)

장 소 : 모던랜드 C&C

(Tangerang / 021 552 9228)

1부 행사 : 12:30분 골프 행사

2부 행사 : 17:30 ~ 18:00 공식행사

3부 행사 : 만찬 및 디너쇼(경품 추첨)

초청가수 : 민해경

연락처 : KOFA 사무국 0858-9060-0962

021-5579-7281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SAINT JAMES

FINE STONE

Brand Story

FineStone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휴식과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Kinfolk life를 위해 태어난 Saintjames의 새로운 FineStone 테이블웨어입니다.

자신들의 일상 속, 뒷밭에서 바로 수확한 유기농 식재료로 차린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밥상, 어떠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런 상차림, 그 모든 것들을 이웃, 내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누는 Kinfolk style을 지향합니다.

Kinfolk Style

KINFOLK STYLE

FineStone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휴식과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Kinfolk life를 위해 태어난 Saintjames의 새로운 FineStone 테이블웨어입니다.

자신들의 일상 속, 뒷밭에서 바로 수확한 유기농 식재료로 차린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밥상, 어떠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런 상차림, 그 모든 것들을 이웃, 내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누는 Kinfolk style을 지향합니다.

Fine Stone만의 자연스럽고 투박한 소박함에 정성을 가득 담아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런 색감과 SIMPLE & MODERN 라인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NEW 테이블 웨어

SAINT JAMES Showroom

Pondok Indah Mall
Jl. 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 021-75920615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gan, Jakarta 12940
Tlp. 021-2988 92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 021-2952 8530

Lippo Mall Puri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 021-2911 1197

고객문의 : 021-3190-6949

www.saintjames.com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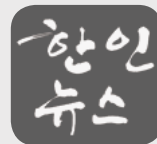
그리고 보니

사랑이건, 교육이건, 종교이건, 밥벌이건, 정치이건, 다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워딩이지만 받아 적었던 사람들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인이 해제된 말들이 쏟아집니다.
머리를 맞대고 퍼즐을 맞춥니다.
모두가 같은 일로 한숨을 쉬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국민대통합은 이런 게 아닌데.....

11월은 항상 '벌써'로 시작합니다.
두 번이 없는 다른 시간대인데도
다가 온 시간이 매번 벅찬 모양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10 편집인 칼럼 / 편집인 강희중
-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의 일기
제 5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후보"
- 15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
- 17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
- 18 한인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논설위원 김문환>
- 20 지역 한인회 소식
- 26 집중! 이사람/ 신만기 대표 <편집팀>
- 28 단편소설 / 무임승차 <배동선>
- 32 즐거운 경험이 주는 힘 <최우호>
- 34 억울함을 가려주던 조선시대 민사소송 <임상혁>
- 36 인터넷 공유의 양면성 / 박상훈 칼럼
- 42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 <최준식>
- 46 2016년 10월 월간 뉴스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50 지상갤러리 <권미선>
극사실주의 작가 김영성
- 52 행복에세이 <김은숙>
- 54 이 표현이 맞나? <최서혜>
- 58 김종성의 생활법률 / 그것이 궁금하다
- 60 인도네시아 민법 (10) <이승민>
- 64 자카르타 한식당 '맛 지도' 탄생
- 65 여기 ~ 맛있어요! <이승진>
- 66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나라인가
<양승윤 교수 강연>
- 68 생활정보



9월 30일 JIKS 초등학교 체육대회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글: 한인뉴스 편집인 강희중

25년 전 내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을 때 핸드폰이 없었다.

불일이 있어 출장을 가면 그 업체에 가서야 여기 저기 전화를 할 수 있었다. 한국직원들은 매주 일요일 자카르타 전화국에 가서야 가족들과 전화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모토롤라의 무선전화기가 나왔으나 무전기처럼 컷고 금액도 약 1,000불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핸드폰이 모든 사람의 생활 필수품 1호가 되었다. 가정부나 아프리카의 목동들도 핸드폰을 사용하니 얼마나 편리한 발명품인가.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은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교통정보나 카톡 등은 정말 유용히 쓰는 매체가 아닐 수 없으며,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해내니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을 때 무한한 대지로 차량이 달려 여기가 어디쯤일까 궁금해 할 때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니 아프리카 지도와 함께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니 어디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으로 설왕설래할 때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확실한 답이 나오니 백과사전이 따로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연일 매스컴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정찰기, 무인자동차가 탄생되었고, 향후 자동제어장치로 차량을 운행할 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트럭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트럭운전은 한사람이 5시간 이상은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운전기사가 2명이 운전해야 하므로 인원절감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출시 24시간 만에 11만5천대의 주문이 넘었고, 2주 만에 주문이 40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럽부터 자동차의 핵심기술을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을 이용한 차를 개발하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0년에는 휘발유를 쓰지 않는 전기차 만 판매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종 산업이나 의료부문에 로봇이 등장하여 사람을 대신하고 위험작업이나 조난구조도 로봇이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학교강의, 중요한 작업, 사고 예방 등의 직종에 로봇이 장악하면 과연 사람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할지?

취업난에 봉착하고 있는 현시점에 점점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젊은이들은 어떤 직종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스마트 아파트가 리벤 찌까랑에서 분양중이다. 스마트폰으로 문단속은 물론 에어컨 끄고 켜기, 실내온도 조정, 각종 전자기구의 사용, TV와 연결하여 각종 다운된 많은 정보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조리 기구, 가정용 보안시스템, 아동용 장난감들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방 안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지름길을 검색하여 음성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날도 금방 오게 된다고 한다.

2025년이 되면 무인드론이 사람이 타는 드론으로 개발되어 날아다니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 자카르타의 교통지옥을 생각하면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핵융합발전을 개발시켜 인공태양을 개발 한다고 한다.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 깔리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신발이나 봉제산업은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긴 지 20~30년이 되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경제성장에 맞추어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 인도네시아내의 노동집약산업도 어려움을 겪어 지방으로 공장들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해마다 인건비가 5~10%씩 상승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을 그만큼 올리든지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그만큼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제조방법은 20~30년 전과 동일한 공장이 대부분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조공장에도 무인작업시스템 등의 자동화를 도입하고 자동기계를 확보하여 향후 영원히 살아남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본이 풍부하니 새로운 자동기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H 타이어 공장에는 타이어 기술은 전혀 없으나 자동화시스템 전문직원이 있어 모든 공정을 제어하고 자동화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중소기업도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연 누가 지원하여야 하는지?

국가? 중소기업청? 협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각 산업체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여 한국업체가 장기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프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도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될 때이다.

그리하여 모든 제조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공장으로도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대사의 일기 제5화

“인도네시아 유엔 사무총장 임명보”



외교 현장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그날 “안보리” 관련 인도네시아에 양보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타협책을 제시한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만큼 사무총장 선출과정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과, 태국 후보가 탈락될 경우 아세안 내에서 한국 지지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가 도움을 준다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질을 준 셈이다. 외교관 출신인 하산 장관이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외교관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부분, 특히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암시하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는 훌륭한 외교관이 아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은 때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사를 포함 외교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자카르타로 귀임하자마자 하산 장관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인사들을 만나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나의 해석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하산 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SBY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안보리”에 관한 언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노 대통령이 “총장”에 관한 입장을 밝힌 만큼 SBY가 한국 방문 때 “안보리” 문제를 제기하면 두 대통령 간에 의견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하였다. 하산 장관은 7월 정사회담에서 “총장”과, “안보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노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처음부터 그 길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외교에 있어서 때로는 본질보다 시기(timing)가 중요할 때가 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게 전향적인 방안을 암시한 시점이 좋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낮추고, 나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한국은 이미 몇 달째 “이사회” 득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한국이 주저하기보다 두 마리 토끼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었다.

인도네시아에게 동년

2006.7.25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4명의 후보를 두고 처음으로 모의투표(straw poll)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 장관은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2 표를 받았다. 지지율 1 위였다. 2위는 인도 후보로 찬성 10, 반대 2이며, 태국 후보는 찬성 7 표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 투표는 순위를 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할 뿐이지만 (이러한 투표가 몇 차례 더 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태국 후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가능성은 낮지만 아세안의 다른 후보, 특히 싱가포르 후보가 나설 경우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지만 태국 후보가 끝까지 남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7월 유엔 모의 투표 직후, 본부로부터 훈령이 왔다. 유명환 당시 외교부 차관 (후에 외교부 장관)

이 8.14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테니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차관과의 면담 약속을 잡으라는 지시이다. 본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득표 활동을 중단하고 “총장” 선출에 전념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9.1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에 먼저 통보하러 유 차관을 파견한 것이다.

8.14 유 차관이 하산 장관을 면담하였다. 유 차관은 “총장” 경선관련 아시아 후보 간 공정 경쟁을 계속하기를 기대하며, 태국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 “ASEAN+3(한. 중. 일)” 후보로서 한국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안보리” 진출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한국이 언제인가 “안보리” 경쟁에 다시 나설 경우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하산 장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나는 한국이 유엔사무총장에, 인도네시아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어 양국이 win-win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국이 포기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유엔 안보리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총장” 경쟁은 제1차 모의투표 결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지만 다수 국가의 참여로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후 “총장” 경쟁은 태국에 9.19 쿠데타가 발생하여 탁신 정부가 붕괴되었다. 10.2 유엔 안보리 모의 투표에서도 한국 후보 찬성 14표, 기권 1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최대 득표를 얻은 인도 후보는 10표 찬성을 받았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있었다. 반 장관이 큰 격차로, 그리고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 소식은 자카르타 현지 시간으로 10.3 한국 국경일 리셉션이 있는 날이다. 나는 그 날 리셉션에 참석한 주재국 인사, 외교단, 교민들로부터 축하인사 받기에 정신이 없었다. 내가 30여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에필로그

해가 바뀌어 2007.2 본부 훈령이 왔다. 한국이 2013/14년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후보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본부는 5년 후에 있을 “안보리” 득표 활동을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드디어 2013년 성공하였다. 한국이 1996/7년 비상임이사국에 처음 선출되었고 16년 만에 두 번째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5년 전 “안보리” 진출을 준비하던 담당자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총장” 추진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국제적 캠페인에 앞서 광범위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거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외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소수 부처, 소수 인사만의 전유물이었던 엘리트 型 외교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비밀주의가 그러한 기회를 막았다.

2006년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 문제를 내기로 결정한 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카르타에 왔었다. 국회 고위인사, 현직 각료도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총장”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한국이 남북한 분단과, 주한 미군 주둔이라는 외교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우리의 캠페인이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두고 가정법을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두고 “만약 (if)...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한 가지 “큰” if가 있다. 만약 북한이 반 총장에 반대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 북한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같이 남북한 대립 상황이었다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을 동원하여 반대하였을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 러시아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만큼 반기문 후보의 성공여부는 쉽사리 점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반기문 총장이 선출되고, 취임하였을 당시 남북한 사람들 모두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기간 중 남북한 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 총장이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사의 일기 제5화 끝)



머리 빗겨주는 남자

촬영장소 / 토라자 술라웨시

사이즈 / 60cm x 90cm

또 라자 장례식은 특이하다. 따우따우(고인의 형상)을 만들어 무덤에 두고, 상여를 집밖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흔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가하면, 동굴 속에 바위에 구멍을 파고 관을 넣던지, 무덤(가족묘)을 창고처럼 집 가까이에 둔다.

더 특이한 게 있다. 토라자언어로 ‘조상을 공경하다’라는 마네네(Manenek)는 무덤의 시신을 꺼낸다. 미라가 된 가족을 보며 죽은 이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가워하는 걸 보았다. 어둡고 습한 곳에 있었다며 ‘햇볕을 쬐여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새 수의로 갈아 입혀’ 준다. 그런 후 새 관에 넣어 새 무덤의 집으로 들어 보낸다.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고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 간다지만 그리 멀리 있지 않고 그리 무서워하거나 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토라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삶, 남이 대신 해주면 죽음인 것이다.



김성월/ 여행작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적도의 타오르는 열정을 세계에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충남 아산에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쳐진 제97회 전국체육전은 막을 내렸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최병우) 선수단은 이종현 단장, 정길용 기수를 선두로 7개 종목 50여명의 선수와 50여명의 임원으로 출전한 선수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재외동포 선수들과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지난 10월 7일 개막식에서 선수단은 가을비를 접했지만 “전국체육대회” 신문의 표지 사진을 장식할 만큼 우리 선수들의 입장 모습은 늠름하고 화려했다.

모두 무탈하게 일주일 간의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12월 중에 가질 해단식에서 다시 한번 체전의 열기를 함께할 예정이다.

최병우 회장은 “적도의 타오르는 열정을 세계에 알리고 재인니 한인동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단장, 기수뿐만 아니라 각 체육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이번 체전의 소감을 밝혔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충주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충청북도 일대에서 펼쳐질 체전에서 도 재인니 한인동포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 본다.



* 종목별 메달 결과 (종목 가나다 순) *

볼링 (은 1, 동 2)

조환국, 김유동 2인조 - 은

전인옥, 유미자, 고순옥, 김태희, 오경희, 이선영

여자5인조 - 동

조환국 마스터스 - 동

스쿼시 (동 1)

한미혜 여자 단식 - 동

축구 (은 1)

탁구 (동 1)

권장명, 김남희 남녀혼합 복식 - 동

태권도 (은 1, 동 2)

-68kg급 최용준 - 은

+80kg급 김인규 - 동

-57kg급 박소윤 - 동

테니스 (은 1)

김현숙 여자 단식

종합 메달 집계

은메달 4개 / 동메달 6개



리콜의 경제학? 리콜의 경영학!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지난 9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갤럭시 노트7은 8월19일 출시 이후 배터리 결함 및 폭발 논란에 시달려 왔다.

삼성전자는 8월31일 한국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입고 중단 조치에 이어 9월2일 마침내 조건없는 리콜을 결정했다. 전세계 기 판매된 물량 뿐 아니라 대리점 재고까지 포함되어 리콜규모는 총 250만대, 리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 최소 1~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은 기업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조치로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제품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최후의 조치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리콜의 원인, 규모, 타이밍, 대응방식에 따라 리콜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흔히 리콜을 언급할 때 양날의 검, 전화위복 등의 표현을 함께 쓰는 것도 리콜이 가진 이런 양면성 때문이다. 리콜로 인한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반면, 리콜의 효과, 즉 리콜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향후 제품판매 영향 등은 예측도, 계량화도 쉽지 않다. 고도의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리콜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콜의 경제학” 보다는 “리콜의 경영학” 이 보다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리콜 역사상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은 도요타 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이다. 동 리콜은 2009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렉서스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가 원인이 되었다.

사고 초기 도요타는 바닥 매트 결함으로 원인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후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결국 총 천만대에 이르는 리콜을 결정하게 된다. 도요타는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결함 문제를 초기에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이후 미국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급감하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반대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바로 존슨앤존슨의 사례이다. 1982년 타이레놀을 복용한 소비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유가 청산가리에 의



한 제품 오염 때문으로 알려지자, 존슨앤존슨은 시판 중인 타이레놀에 대한 수거조치와 함께 언론을 통해 리콜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리콜에 따른 존슨앤존슨의 손실은 당시 수억불에 달했으나, 이후 조사결과 약품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아닌 고의적인 독극물 주입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누군가 제품에 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 특수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간다.

금번 갤럭시 노트7 리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비단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기업집단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9월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치며, 4분기 연속 0% 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분기 1.2%를 기록했던 제조업 성장률이 3분기 -1.0%로 역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서 제조업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이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업종의 3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경제성장률 예측 시 갤럭시 리콜사태의 추가적인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리콜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호의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리콜 결정이 전화위복이 될 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 정체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지,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한인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다

지난 15일 오후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부고가 날아 들었다.
여한중 전 대사의 부인께서 소천하였다는 비보였다.

3등서기관부터 시작하여 공사직책에 이르기까지 오직 인도네시아 수문장으로 일관하시다 마지막 직책인 대사직마저 주변국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마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던 여한중 전 대사, 그러나 지금 고인이 되신 그의 부인 장평화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역사적 의미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3년 발간된 단행본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에 자세히 기술되었듯이 장평화는 평탄치 않은 삶을 이어 오셨다. 동경제국대학 상과를 나온 부친 장운원은 조국에서 은행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 3.1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여 일경의 체포대상에 오르자, 그 다음해인 1920년 4월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만주로의 망명길에 오른다. 이후 베이징에 잠입하여 네덜란드총독부 고위 관리 안젤린의 권유를 받아 그 해 9월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로 들어온다. 자바땅을 밟은 최초의 한국인으로 기록된다.

장운원이 네덜란드 총독부 일본어담당 고등판무관으로 근무 중이던 1942년 3월, 일본제국군이 자바를 순식간에 점령하더니 네덜란드군을 비롯한 9만 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억류되었으며, 이에 협력한 화교들을 포함한 적성국 요인들도 체포된다. 네덜란드 고위 공직자이던 장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제16군 헌병대(현재 국방부 청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스트루스윅 형무소(현재 살렘바 형무소)에 수감된다. 7개월 후 늦둥이가 태어나자 가족들은 형무소를 방문하여 부친에게 작명을 부탁한다. 내 주변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먹구름과 태풍만 몰아쳤으니, 내 후손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달라는 염원 속에 ‘평화(平和)’를 빈 종이 위에 써 주었다.

1966년 8월 한국-인도네시아간 영사관계가 수립되어 그 해 12월 초대 총영사와 공관원이 부임한다. 우선 급선무가 인도네시아어를 익히는 것이었다. 대사관 직원들과 그 부인들이 당시 라와망운 지역에 위치한 UI대학 어학연수원에 등록한다. 연수기간은 1년이었으나 일과에 바쁜 남자직원들은 3개월 속성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부인들은 6개월, 또는 1년 코스를 밟게 된다.

UI대학 영문과 출신의 장평화는 영문과 조교로 재직 중, 한국인들이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방을 기웃거리다 한국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장평화는 자신의 부친이 한국인이라고 실토했다. 깜짝 놀란 한국인들은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장평화의 부친 장운원의 후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장평화는 UI 대학 조교생활을 청산하고 아예 한국총영사관 직원으로 채용되어 제3대 김좌겸 총영사의 비서로 봉직한다.

김 총영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71년 9월 장평화는 드디어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나는 한국의 딸’이라는 제호의 기사가 한국일보, 신아일보 등 국내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청년이 편지를 띄우게 된다.

장평화는 대사관으로 승격한 대한민국 공관에 근무하던 초급 외교관과 1974년 3월,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펜팔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두분 다 카톨릭 신자인 탓에 자카르타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혼례식을 치르게 된다. 장평화는 외교관인 남편을 도와 1980년대 군부와 정계를 주름잡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경제담당 보좌관인 소피아와 와난디와도 교류하게 된다. 장평화와 소피아안은 전공은 틀리지만 UI 대학 동기생이었으며, 베니 무르다니 장군은 1970년대 초 제2대 주한 총영사를 역임한 지한파(知韓派)의 거물이었다.

한편 네덜란드 명문대학인 델프트 공대를 마치고 귀국한 장평화의 둘째 오빠 장순일은 1960년 아뜨마자야대학 12명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초대 공대학장, 스망기 캠퍼스 건설본부장, 재단부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인의 혼’을 자카르타 심장부에 새겨 놓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 공직에서 은퇴한 남편을 따라 경기도 분당에서 여생을 보내던 장평화는 말년에 치매증세를 보이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문환/논설위원



사진설명: 좌로부터 큰오빠 장남해, 큰언니 장창포, 둘째 오빠 장순일, 장평화

땅그랑반튼 한인회, 한인의 밤 화합과 소통의 대잔치

600여 한인들이 모여 축제 분위기 한껏 느껴

지난 20일 땅그랑반튼 한인회(회장:오세명)에서 한인동포들을 위한 일곱 번째 골프대회 및 한인의 밤이 열렸다.

이번 한인의 밤 행사는 화합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지역 교민을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 등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땅그랑은 물론 반튼 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주축이 된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화합이 잘 되고 왕성한 활동으로 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봉사, 한인상호간 화합을 주도해 왔다.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이명호총영사, 송창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전민식 민주평통 남부협의회회회장등 많은 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공연에는 가수 김학래가 공연했고 그동안 쌓은 교민들의 개인기를 뽐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산하 문화원 수강자들과 한인 자녀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어깨

춤을 추면서 떼창(함께 부르기)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가족과 친지의 사진을 찍기도 하며 시간은 가는 줄 모르는 유쾌한 밤이었다.

최근 창단한 ‘아리아여성합창단’은 우리 가곡을, 어린이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율동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You Raise me up’ 등 노래를, 기타 동호회는 ‘음악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들려주었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현지 한국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하기 위해 땅그랑문화원을 통해 미술반, 합창단, 기타반, 사물놀이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지 저소득층 어린이 할례(Sunatan) 지원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근경에 처한 한인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땅그랑반튼 한인회 오세명 회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인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THE MEDIA KOREA)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경북영덕과 자매결연협정식



2016년 10월 14일(금)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전민식)와 경북영덕군협의회(회장 최길동)는 경북영덕군청에서 자매결연 협정식을 맺었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30여명의 자문위원(2협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전민식 동남아남부 협의회장과 최길동 영덕군 협의회장은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협정식에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축사를 통해 두 협의회 간의 협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두 협의회가 적극적인 협력하여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먼저 합심하고, 이러한 관계가 결실로 이어져 영덕군의 주요 농산물(송이버섯, 복숭아, 사과)들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길동 영덕군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협의회가 힘을 합쳐 평화통일에 노력하면 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며 이번 행사에 대한 기쁨을 표시했다.

특히, 영덕군 협의회는 대한민국 최우수 협의회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최길동 영덕군협의회장은 경북

지역에 탄탄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갖추고 민주평통내 많은 봉사활동에 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식 동남아 남부 협의회장은 답사로서 동남아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는 5개국으로 구성된 다국가 협의회임을 설명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섯 국가가 함께 활동하고 있어 주재국의 여론 결집에 노력하고 함께 대처하며 정보 공유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경북영덕 특산물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남아남부협의는 2015년 해외협의회중 모범협의회로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받은바 있어 대한민국 평화통일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어, 앞으로 두 협의회가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도록 함께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로써 동남아 남부협의회는 국내 민주평통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공동목표를 향해邁進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협정식은 두 협의회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이 되어, 또 다른 큰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한인 미술협회 '제17회 정기전'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이하 미협)는 '제 17회 정기전' 을 개최했다.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20일(목) 오프닝을 시작으로 25일(화)까지 6일간 열렸다.

이번 정기전은 미협 회원 19명의 작가가 서양화를 비롯해 동양화, 추상화, 입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여점을 출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미협 신돈철 회장은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국제적인 아트페어가 열리는 등 아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협 또한 우리 안의 잠자는 예술혼을 깨워 자신만의 독특한 컨템포러리아트를 매년 정기전을 통해 펼쳐 보이고

있다.” 며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문화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마음과 시간을 바쳐 응원하는 미협 회원가족들에게 감사 드렸다.

조태영 대사는 “전시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의 예술 역량을 알리고, 한인동포 사회와 인도네시아 예술계가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미술 작품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인들의 생활에 지친 피로를 말끔히 지우는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다.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

문정희 시인이 11일,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 한인회, 한인포스트가 후원한 이번 강연회는 문인협회 회원 외 교민 30여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문정희 시인은 자신이 겪은 6.25 전쟁, 초등학교 시절 대도시로 전학 갔던 일, 서울로 상경해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환경 등이 문학의 길을 걷게 된 주요인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화여대 문학공모에서 1등을 하면서 고교생 시절에 첫 시집을 냈고, 대학 4학년 때 등단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했다.

“겸손의 감정은 노예의 감정이다. 문학은 낭만과 추억이 아니라 고통과 목마름이다. 부자유에 대한 항변과 질문, 날카로운 칼끝이 문학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문정희 시인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법과 독서를 통해 언어의 용량을 넓히며 삶의 틀을 깨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에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자신의 시를 낭송하며 시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어 간 강연에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올해 남미와 러시아 시낭독회에 이어 인도네시아 족자국립대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4대 시인에 선정된 문정희 시인의 강연은 깊이 있고 울림이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KOICA, World Friends Korea(WFK) 봉사단 하반기 현지평가회의 개최

우 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10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우리정부가 파견하여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World Friends Korea(WFK) 봉사단의 하반기 현지평가회의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그란멜리아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현지평가회의에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오기운 사무소장, 이영인 부소장과 봉사단원 45명 등 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오기운 사무소장은 타 지역에서 수고해주는 봉사단을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어 봉사단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한번 더 제고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 목표를 상기시키고, 동 분야별 및 지역별간의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안전집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의 안전 이슈를 재점검하고, 지역별 재난에 관한 안내 방침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지역별로는 수마트라 지역(6명), 자바 지역(24명), 깔리만탄 지역(13명)과 술라웨시 지역(6명), 총 49명의 봉사단원이 활동 중이며 분야별로는 한국어(21명), 미용(1명), 요리(1명), 유아(6명), 태권도(1명), 컴퓨터(10명) 교육 및 산업에너지(자동차, 2명), 농림 수산(농업, 2명), 공예(1명), 관광(1명), 미술(1명), 사회복지(1명), 섬유/의류(1명)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 法”에 대해 봉사단원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삼았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의 개인별 활동내용을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분야별 협력활동과 지역별 협력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함으로써 동료 단원들의 활동 이해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맞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 파견인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KOICA는 봉사단 활동에 머물지 않고 상호 전략적 연계와 활동영역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맞은 한글날, 한글서예전으로 기념하다



2016,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서예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 지회 회원들이 창작한 신작 한글서예작품 43점 전시가 찌까랑(Cikarang)의 자바팔레스 호텔 문화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는 570주년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11월 6일까지 무려 한 달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는 자바팔레스 호텔 박재한 대표가 2013년 11월 호텔을 개관한 이후 세 번째로 마련한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로 이날 개막식에는 출품한 작가들은 물론 자카르타 위성 도시 찌까랑과 인근 지역의 한인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박재한 대표는 개막식 인사말에서 “타국에 사는 교민들에게 한글은 또 다른 의미로 새겨본다. 고국에 대한 향수도 타국살이 애환도 우리말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 한글은 우리에게 참 큰 보배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 한글서예초대전을 주최한 배경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한글서예초대전은 보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면 출품 회원 29명 중 24명이 한글서예를 공부해보지 않은 회원들이 세련미는 다소 부족할지언정 순수하면서도 개성 강한 작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출품회원들은 이구동성 “매우 흥미롭다. 특별히 한글서예를 배우지 않았지만 바른 필법을 공부한다면, 곧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 소득이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전시를 지도한 인재 손인식 작가는 이에 대해 “긍정하며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 서예는 심상을 화선지 위에 붓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도전정신과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고 이번 전시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그간 자바팔레스 호텔 문화관에서는 서예, 한국화, 서양화를 비롯하여 판화, 공예, 사진, 꽃꽂이, 쿨팅 등 17회에 걸쳐 초대전 및 기획전시를 열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문화단체의 행사나 전시뿐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방문전시도 몇 차례 있었다. 전시가 없을 때는 자체 소장품을 전시함으로써 연중무휴 문화관을 개방하고 있다.



집중! 이 사람

끊임없는 도전으로 신발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PT. PARK LAND WORLD INDONESIA

신만기 대표

한인뉴스 편집팀은 10월 25일 신만기 대표(신발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위해 PT. PARK LAND WORLD INDONESIA (Serang Banten소재) 를 방문했다.

“
현장을 아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활용을 이끌어낸다.
기술의 한계는
관리로 극복한다.”



1. 신만기 대표의 인도네시아 진출 스토리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생산기반 산업, 특히 신발산업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기를 맞이함으로 인해 한국이 노동집약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채산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발산업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소개(생산상품 및 영업현황)

파크랜드는 2005년 하반기 출범하여 아디다스 브랜드 월 20만족을 시작으로 2년 뒤 80만족, 2010년 월 120만족을 넘어 지난해 아디다스 및 뉴발란스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 3억불을 달성하였고 년 2천4백만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 즈빠라 신규사업부가 정상화되면 연간 6천만 족 이상의 생산을 하는 초대형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봅니다.



**빠른 판단과 결정,
전권을 갖고 책임지는 경영이
파크랜드의 원동력**

현재 영업현황을 보면 아디다스 러닝카테고리 시즌 총 300만족 생산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독립적인 러닝 개발센터를 운영하여 핵심러닝모델과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아디다스 주력공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돌아보면(스마랑 제3공장의 설립과정 이야기)

파크랜드가 지난해 7월 첫 삽을 뜨지 약 1년 만에 공장을 준공하게 된 것은 파크랜드 고유의 강력한 추진력과 철저한 계획속에서 사장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3공장은 투자금액 약 1억 2000만불의 투자로 20ha의 건물로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공장으로 새로운 신발산업의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4.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오는 2018년 즈빠라지역의 3공장이 풀가동되면 파크랜드는 인도네시아 3개 공장, 145개라인에



서 연간 6천만 족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신발제조업체로는 글로벌 5위에 해당되는 규모가 됩니다. 우리는 규모로서 뿐만아니라 신발제조기술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탈바꿈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화 신발기술 연구소를 발족하여 자체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5. 신만기 대표의 경영철학에 대하여

먼저 저의 경영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파크랜드 경영혁신 사훈에 관심을 집중하여,문제를 발견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평생 신발인으로 살면서 체험하고 터득한 기술을 접목할때 마다 느끼는 것이 관심 철학입니다. 관심이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6. 인도네시아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찬 한해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개개인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문화와 사회상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임승차



마침내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은지도 이미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양이 시체를 찾아 끌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실 사환 딜라에게 카톤박스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전화할 때 차에 고양이 시체가 있다는 말을 들은 그의 파트너 릴리스는 펄쩍 뛰며 얼른 올라와 손부터 씻으라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아직 고양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차에서 벌어진 일이니 어차피 그 뒷수습도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직접 카톤박스를 깔고 차 밑에 기어들어가진 않더라도 시체를 발견하면 최소한 어느 화단에라도 손수 묻어 주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딜라나 주차장 경비원에게 부탁하고 그가 나몰라라 자리를 뜬다면 오늘 죽음을 당한 가여운 고양이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전등을 꺼내 다시 차 밑을 비춰 보자 빗길을 달린 차에서 아직도 똑똑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들이 고양이가 죽어가며 흘린 핏방울처럼 느껴져 그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보았습니다. 그건 분명 흙탕물이었어요 하지만 조명 때문인지 그의 눈에는 피로자 짙은 피로 물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야옹~

뭐시라? 그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으로 다시 차 밑 이곳저곳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 밑엔 여전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원금을 갚기 전에 거치기간이란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죽자마자 좀 쉬지도 않고 바로 귀신으로 데뷔한 것일까요?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차장이 좀 어둡긴 했지만 그의 차 건너편 끼장 벤 뒤로 꼬또쁘락과 가도가도를 파는 간판 구내매점이 있었고 거기 앉아 있는 한 무리의 운전사들이 보였습니다. 로비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정복을 차려 입은 경비원도 한 명 서 있었고요. 이 정도면 귀신 나올 분위기는 절대 아닌데 저들에게는 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미심쩍은 마음에 다시 차 밑을 헤집던 손전등을 오른쪽 뒷바퀴 위의 시커먼 공간에 비쳤을 때 그 안에서 불쑥 나타난 작은 얼굴이 그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검정 줄무늬. 발육부진, 그 녀석이 그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통 위에 그런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속업소버 위엔 기름통 위로 통하는 작은 입구(?)가 있었고 그 위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속으로 돌던 타이어가 쏟아 붓던 흙탕물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손바닥만한 작은 고양이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그 입구에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손을 뻗자 안쪽으로 슬금슬금 도망가는 것이 어딘가에 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지 쾌적한 승차감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험한 도로를 고속으로 달려 온 탓에 떨미를 하고 있을 것만은 분명했어요. 오

늘 아침 어찌다가 그 위까지 기어 올라갔던 녀석은 빠져 나올 찬스를 놓쳐 30km는 족히 될 거리를 무임승차해온 것입니다.

뒤늦게 내려온 딜라와 함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 흙투성이가 되어가며 고양이를 간신히 끄집어내는 데에 30분 정도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상상으로 참담해졌던 그의 마음은 이미 따뜻한 안도감으로 푸근해져 있었습니다. 그 소동을 보고 경비원과 기사들이 모여 들었고 마침내 그가 고양이를 안고 차 밑에서 기어 나오자 모두들 탄성을 지르며 박수까지 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두 손 안에 꼭 들어와 안겨 있는 흙투성이 새끼고양이는 구출과정에서 또 다시 쇼크를 먹은 듯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습니다.

“갓다 버렸다구??”

그는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차 밑을 기며 그 난리를 치느라 흙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소매며 팔뚝을 화장실에서 씻고 돌아오는 사이, 그가 사무실에 풀어 놓은 고양이를 릴리스가 딜라를 시켜 다시 주차장에 내다 버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구조하느라 이미 늦어버린 약속시간을 대려면 바로 뛰어 나갔어야 하는데 약속시간은 다시 기약도 없이 뒤로 밀립니다.

“갠 집이 짜꿍인데 여기다 풀어 주면 어떡해?”

“흙투성이 고양이를 어떻게 사무실에 놔둬요? 여긴 사무실이지 동물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동물원 차리면 개는 오늘 저녁에 자기 엄마랑 재회할 수 있는데 그 몇 시간을 못참아서 걔 고아로 만들자는 거야?”

“손님이라도 오면 어떡해요? 고양이한테 커피 타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알기라도 하면 어찌려구요??”

말싸움으로 릴리스를 이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종종 억지주장을 하는 법이지만 이 술라웨이시 여인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미팅할 때마다 상대방을 손쉽게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민국이나 노동부, 세무서에서 쳐들어와도 눈썹 하나 까딱 안하고 싸우거나 회유하면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릴리스는 많은 장점을 가진 여자였고 그래서 그녀의 명의로 회사를 내고 파트너 관계까지 발전한 거지만 눈을 치뜨고 덤벼들 때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가 자기 월급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릴리스가 그를 깔보고 머리 위에 올라 앉으려 할 리는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건 자신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무실에 둘 수 없다는 릴리스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그의 페로자에 몰래 무임승차 해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절대 불가능하지도 않은 아주 작은 배려를 아껴 가족들과 생이별시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 비고양이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놈이 손님이야! 내 손님이라구! 어찌자고 내 손님을 맘대로 쫓아내? 무조건 찾아 놔!!”

허탈 반, 노여움 반에 그렇게 화를 내며 그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날 아침 일찍 KBN 공단에서 검사한 자켓들과 오후에 찌비농 공장에서 검사할 우비들은 주말까지 선적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고양이를 구해 주느라 검품을 할 수 없었어요... 명색이 비즈니스인데 바이어나 공장에게 이런 소리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 고양이를 버리고 돌아온 딜라는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되어 다시 고양이를 모시러 허겁지겁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릴리스와 팽팽한 눈싸움 공방을 한 결과였죠. 약속장소인 찌비농으로 달려가던 자고라위톨에서 새끼고양이를 무사히 되찾아왔다는 릴리스의 전화를 받았습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통명스럽게 그지없었지만 지하주차장에서 천방지축 도망치는 고양이를 잡으려 땅을 뽄뽄 흘리며 뛰어다녔을 딜라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라 그는 혼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책상 옆 카톤박스 안에 웅크리고 있던 새끼고양이는 릴리스 못지 않게 사뭇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단식투쟁이라도 하는 중인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닭다리에 우유까지 쥐 보았지만 그 녀석은 입도 대지 않았고 그가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쓰다듬으려 하면 이빨과 발톱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까 차 밑에서 끌어낼 땐 얌전하던 녀석이 말이죠. 그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이거나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해 줬다고 뭐 영웅취급 받을 줄 알았어요? 직원들한테나 그만큼 해 봐요.”

아오, 저 싸가지.

하지만 릴리스가 빈정거리듯 말해도 지금은 아까 같은 전투모드가 아님을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릴리스도 마음 약하고 섬세한 여자입니다. 최소한 몇 년 전 면접 보러 왔던 그녀는 분명 그랬습니다. 파트너로 발전한 지금은 잘 보여주려 하지 않아 그렇지 심성은 여전한 거라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지 금방 품을 떠날 새끼고양이에게 쉽게 정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 뿐이겠죠.

“어디 한 번 같이 가 봐요. 고양이들이 고맙다고 고개라도 까닥 하는지.”

퇴근길에 릴리스는 고양이 박스를 자신이 직접 들고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집이 뻘쭙란 사무실에서 벗어나 코 닿을 빠사르밍구인 릴리스가 짜꿍에 간다는 건 나중에 한 시간 가까이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화해의 시도라면 그 역시 그녀를 차에 태워 빠사르밍구까지 데려다 주는 화기에애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까 짜증내서 미안하다는 한 마디면 될 것을 쓸데없는 자존심이 참 비효율적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혼자 가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참았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휴전분위기를 굳이 망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조신하던 릴리스의 버릇을 저렇게 다 버려 놓은 건 따지고 보면 다 그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일로 만났으니 칼같이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늘 예뻐하고 칭찬하고 응석을 받아 주기만 했던 거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짜꿍 집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누엣누엣 지는 중이었고 동네사람들은 차에서 박스를 끄집어 내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동네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골목에서는 물론 단지 전체를 통틀어 몇 안되는 외국인 입주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외국인들이 남부 자카르타의 뽀독인이나 꼬바요란 지역에 밀집해 살던 90년대 말, 북부 자카르타의 허름한 주택지에 사는 한국인은 현지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폭동 직후 자경단을 급조해 온갖 살벌한 도검류를 들고나온 주민들은 함께 순찰을 도는 외국인의 모습을 신기해 하며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 후로 그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온갖 잔치며 대소행사에 초대를 받곤 했습니다. 이제 그가 낯선 여인과 함께 큰 박스를 들고 차에서 내리자 옆집 담장 위로 사람들 머리가 자꾸 솟아 올라왔습니다.

박스를 내려 놓고 옆으로 눕히자 당장 박스에서 뛰어 나갈 줄 알았던 새끼고양이는 박스뚜껑을 밟고 선 채 야옹~ 하며 길게 몇 번을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들입니다. 엄마고양이, 줄무늬 형제 고양이들. 집 앞은 폴짝폴짝 뛰는 고양이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의 정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종적을 감춘 발육부진 막내를 찾아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겠죠.

엄마고양이가 가까이 오자 그체서야 발육부진 이 녀석이 박스에서 쏠살같이 뛰어나가 엄마 주변을 돌며 날뛰기 시작했고 형제들도 눈이 어지러운 정도로 그 주변을 에워싸며 뛰어 다녔습니다. 기뻐하는 녀석들을 보니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옆을 돌아보니 짐짓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던 릴리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불일을 다 본 고양이들이 공터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를 께 돌아보는 엄마고양이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고마운 줄 모르고...!

저 녀석은 그가 마음 고쳐먹은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만 더 까불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위협과 경고의 눈초리였어요.

예의 그 ‘쉬~익’ 하는 독기를 뿜으면서 말이죠. 쟈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그는 또 한숨을 내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릴리스 말대로 저 녀석들은 도무지 고마워 할 줄 모르는 거겠죠. 엄마고양이가 다시 새침하게 고개를 꺾 돌리며 새끼들 뒤를 쫓아 갈 때 그 장면을 본 릴리스는 벌써 깔깔거리며 요절복통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뭐,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잉어나 거북이를 방생해 주었더니 나중에 용왕이 꿈에 나타나 감사의 절을 하더라는 식의 전개를 그는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이들이 몰려와 그의 다리에 몸을 부비면서 막내 돌려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누가 뭐래도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한 셈입니다. 아무도 고마워 하지 않지만 그는 그날 잠시 고양이들의 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쉬~익! 이래!! 하하하!”

그런데도 아직까지 웃음을 멈추지 못해 그의 등을 탕탕 치며 깔깔거리는 릴리스를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양이처럼 냉정함과 살가움 사이에서 종잡을 수 없는 릴리스 이 녀석이 날이 갈수록 버릇없이 굴도록, 그리고 엄마고양이가 그를 볼 때마다 매번 독기를 뿜으며 덤벼들도록 스스로 방치했던 사실을 그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예뻐하지만 말고 모질게 가르쳐야만 했던 건데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모질지 못한 것이 그토록 잘못이라면 무임승차한 새끼고양이에게 일단 차비라도 내놓으라 다그쳐야 했던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 주는 힘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대학입학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서류준비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필요하다는 서류는 학교를 방문할 때 마다 바뀌고, 2주일간 애써 준비해간 서류를 필요 없다고 하거나, 외국인이라고 하니깐 갑자기 KITAS 발급을 위해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학교에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3x4 크기의 반명함 사진을 가져 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모두 4x6의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며 근처 사진관에 가서 빨리 찍어 오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앉아만 있는 상황도 있었다. 거의 30분가량 분명 3x4 크기의 사진이라고 써져 있다며 증거를 보여주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아서 결국 화를 내며 큰소리를 쳤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직원과 속삭이더니 3x4의 사진으로 그냥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맥이 쭉 풀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하고 학비도 냈는데 한달이 넘게 학교 측에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 KITAS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OT에 참가해야만 졸업할 때 필요한 봉사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OT가 의무화 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하는데 나

는 KITAS 원본이 없어서 OT에 참석할 수 없다는 웃기지도 않는 통보까지 받았다.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

이곳의 일처리 방식은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결국 봉사점수를 1점도 받지 못했다. OT에만 참석해도 한 번에 다 받는 점수를 졸업 전까지 각종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해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우리 교민들 중에 이런 상황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은 이틀 밤낮을 들어도 모자를 정도로 많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차별 받는 불리한 상황에 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는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 또한 참 많다. 나는 입학을 준비하는 4개월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 4번을 포함해서 필리핀, 파푸아, 발리, 수라바야, 브로모 화산 등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형편이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4개월이란 시간동안 이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며 경

힘을 쌓을 수 있었을까? 여행을 하면서 느낀 인도네시아에서 살면 좋은 점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이번에는 여행이 아닌 색다른 경험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는 작년에 인터넷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현지 유명디자이너 Harry Darsono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교민 행사에 자주 오시는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많은 교민들이 익숙할 것이다. 그분은 본인이 여는 행사에 지인들을 모델로 세운다. 그렇기에 나는 행사 때마다 모델 제의를 받곤 하는데 수고비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수확이 있었다.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파티 분위기 속에서 평소에 못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현지에서 유명한 예술가, 연예인, 정치인의 가족 등과 교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거나, 행사장 귀빈석 자신의 옆자리에 앉힐 때면 많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였다면 지극히 혼남(혼한 남자)인 내게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 내가 외국인으로서 이분의 눈에 특별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이 하리 선생님을 통해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다.

10월 15일에 Hotel Pullman에서 Harry 선생님



의 행사가 열렸다. CNN을 비롯한 5개의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왔고 수많은 귀빈들이 초대됐다.

이 패션쇼는 향후 서울, 베이징, 상하이, 교토에서도 열리게 된다. 나는 잘 몰랐는데 규모가 상당한 행사였던 모양이다. 피팅룸에서 지루하게 몇 시간을 대기하던 따분함에 지쳐갈 찰나, 드디어 피팅룸의 문이 열렸고 선두로 행사장에 들어가는 순간, 눈앞이 잠시 안보일 정도로 수많은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족히 몇 십 명은 되어 보이는 관객과 기자들의 카메라가 조금 어두운 행사장을 밝게 비췄다. 눈부신 빛 속에서 처음 느끼는 묘한 기분이 들더니 나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곤 너무 긴장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긴장을 풀어 버린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머릿속이 하얗게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남자 모델이 나까지 4명 있었는데 CNN 기자가 나를 붙잡고 인터뷰 요청을 했다. 영어로 할까 인니어로 할까 몇 초간 고민하다가 인니어로 짧게 인터뷰도 했다. 며칠이 지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지만 언뜻언뜻 내 모습이 비추니 재밌어서 몇 번을 돌려봤다. 민망하기도 했지만 참 재밌고 가슴 설레는 경험이 되었다.

사실 요즘 하루해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학업량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참석하는 많은 모임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 이미 다 컸지만 엄마랑 통화할 때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녀?” 라고 물어보면 문득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가끔 너무 힘들 때면 한국에서 편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꿈을 꾸며 이 나이에 이곳에 와서 나 자신을 확대하며 사는 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답답할 때보다 행복할 때가 더 많다. 좋은 기회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새롭고 즐거운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 인도네시아 생활은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Harry 선생님의 무대에서 나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던 것처럼 언젠간 내 인생에 찾아올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억지로 웃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웃으며 손 흔들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스스로의 각오를 다져 본다.

억울함을 가려주던 조선시대 민사소송



소제기는 세 번까지 가능한 ‘삼도득신법’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기관에 호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소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갖추어져 있었다. 지방의 경우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수령이 바뀌길 기다렸다가 다시 상소하거나 관찰사에게 항소할 수 있었다. 이유 있는 항소라 여겨지면 관찰사는 다른 지방의 수령에게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로써도 성에 차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소송을 담당하던 중앙의 형조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소송에 대하여 스스로 판결하기도 하였지만, 노비 사건이면 장예원(掌隸院)으로, 땅과 관련된 전답 사건이면 한성부(漢城府)로 보내 심리하게끔 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처리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임금에게까지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신문고를 칠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왕이 행차할 때 길목에 있다가 팽과리를 치면서 왕 앞에 엎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무례함을 벌하면서도 억울한 사정을 듣고 살펴봐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사법 체제에는 같은 소송이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 번의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는 소제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 시행되었다. 오늘날의 판결 확정 제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송이 넘쳤던 조선, 노비 소송만 해도 달린 12,797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조선 시대에는 소송이 무척 많았다. 건국 초부터 넘쳐나는 소송 때문에 임금들은 언더리를 냈다. 대부분이 노비 소송이라 태종은 노비제도를 없애버리면 소송이 없어지겠다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신하들은 동방(東方)의 까닭 있는 제도라 없앨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태종이 그럴 만도 했던 것이, 태종 6년(1406년) 6월만 해도 노비 문제로 소장을 낸 것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을 때 12,797건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던 것이다. 넘쳐나는 소송 해결을 위해 1회의 판결로 끝내도록 하기도 했고, 기한을 정해 그 이전 사건은 전면적으로 제소를 받아주지 않는 정책도 써 보았다. 하지만 합리적인 규정과 공정한 판결만이 소송의 적체를 원만히 해결할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과한법(過限法), 처음에 살펴본 삼도득신법처럼 이웃 나라에는 없는 앞선 제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빠짐없이 기록하는 판결문, 무려 32.4m

조선의 재판이 나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판결서로도 알 수 있다. 요즘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판결문에는 소장 내용은 물론 변론 기일, 변론 내용, 증거로 제출된 문서, 증인의 진술까지 모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연히 파악할 수 있어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한 특징이다. 이로써 상급기관에서는 문서만으로도 판결

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송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만큼 증거가 많이 제출되면 판결문의 분량 또한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판결문은 빠른 필기체인 초서로 기록되어 있고, 엄청나게 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578년 경상도 흥해군에서 이준 형제에게 발급한 판결서는 길이가 무려 32.4m에 달한다.

글·임상혁(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러스트·이근길



인터넷 공유의 양면성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진위 여부 파악하는 방법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요즘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Know-How의 시대는 가고, Know-Where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정보를 찾아내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Tag와 Share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이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결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이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지만, 그럴 듯하게 꾸며져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떠도는 글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잘못된 정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정보를 가장한 유언비어

각종 SNS에서는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 장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같은 SNS에 많이 공유되어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은 보기 힘듭니다. 이런 글들 중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긴급사항

넘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010-9328-XXXX으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마세요. 발자마자 1,250,000원이 차감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번호를 폰에 저장해 놓고 이름란에 - 사기꾼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모두 퍼다가 주변에 알려주세요! 주위에서도 1,000명이 당했습니다.

- KBS -



이런 형태의 글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정말 빠른 속도로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글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 한참 돌 때 한달 동안 전화번호만 바꿔서 돌아다니는 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런 글을 보시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내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와 큰일 났다, 1,250,000원이면 큰 돈인데 전화 받는 것만으로도 돈이 나가다니. 이거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돈이 빠져 나가나? 특정 전화번호가 저런 식의 사기가 가능하다면 이 전화번호 말고도 더 많은 전화번호로 이런 사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가? 1,250,000원씩 1,000명이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당한 금액만 12억이 넘는데 왜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걸까? 이것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전화 받는 것 만으로 12억 이상의 피해를 봤다면, 뉴스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만 검색해 보면 저 글 때문에 전화번호가 도용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는 기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사항, 많이 퍼다가 알려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는 글들, 출처에 앞뒤 없이 ‘KBS’, ‘조선일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들 대부분 유언비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별 생각 없이 공유한 글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한번만 검색을 해 봐도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쉽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감정에 호소하는 글. 쌍방의 분쟁

쌍방의 분쟁에 대한 글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어느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음식 퀄리티도 낮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아 주지도 않았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네티즌들이 댓글로 그 식당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막상 나중에 알아보면, 식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손님의 문제인 경우로 판명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글, 쌍방의 문제에 대해서 편향적인 입장에서만 쓰여진 글은 판단하시고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입장을 충분히 다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일 때 공유하셔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글

정치적인 글, 종교적인 글은 진위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커뮤니티의 특성입니다. 정치적으로 모인 커뮤니티와 종교적으로 모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글, 종교적인 글을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올리고자 하는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커뮤니티에 정치적인 글과 종교적인 글을 올리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정치이고, 종교이다. 정치랑 종교와 관련 없는 글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신다면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현 정치상황에 대한 글이고, 종교적인 글이라면 그런 글들은 일반적인 커뮤니티에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채팅방이 아니라도 보수우파, 중북좌파 나눠가며 싸울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올리면,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신념에 더 반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도는 글 중에서는 쉽게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를 위해서,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가장해서 쓰여진 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글들은 검색으로도 쉽게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이러한 유언비어라 불릴 수 있는 정보들은 더욱더 정교화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감동으로 어떨 때는 논리로 읽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더 정교화 될수록, 이런 글들을 소비하는 우리들도 더 이성적이고 더 날카롭게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터넷 매너와 정보에 대한 선별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차! 영차! 우리팀 이겨라’ -JIKS 초등 체육대회-

2016년 9월 30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백우정)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루어진 초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교장선생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1-3학년 학생, 4-6학년 학생이 백팀과 청팀으로 나누어져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JIKS 어린이들은 1-3학년의 날아라 주사위, 신나는 밧자루, 지구를 굴리자, 복 받아라 등의 경기와 4-6학년의 나는야 하키선수, 바나나 보트, 지네발 릴레이 등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 힘을 모아 경기하는 협동심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각 경기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6학년 학생은 “하루종일 친구들과 뛰며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청팀이 이겨서 정말 기뻐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마지막 체육대회라 아쉽다.” 며 소감을 밝혔다.



제 17회 JIKS 초등 수영대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2016년 10월 14일(금)에 제17회 JIKS 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는 남녀, 학년별(1학년 25M/2~6학년 50M)로 나뉘

자유형/배영/평영/접영 4개 종목 개인시합과 학급대항 자유형 릴레이(1~3학년)로 구성되었다.

교장선생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본교 원어민 영어 선생님의 힘찬 사회로 진행되었다.

많은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가 펼쳐진 결과 각 학년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특히 김가은(1), 우은수(2), 류정우(2), 장민석(3), 신준영(4), 김무빈(5) 학생은 각각 두개의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여 2관왕에 올랐으며, 자유형릴레이는 1-1반, 2-2반, 3-2반이 1위를 차지했다.

본 대회를 통해 JIKS 어린이들은 수영실력과 체력을 기르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겨요’ - JIKS, 한글날 기념대회 실시 -

2016년 10월 7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는 한글 창제 570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내 한글날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대회는 맞춤법 왕 뽑기, 순우리말 겨루기 골든벨 대회, 시화 그리기, 한글홍보 포스터, 한글 글씨체 디자인 등 다채로운 부문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년별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작품들은 본교 초등건물(디딤관) 1층 중앙현관에 게시되고 있다.



JIKS 어린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4회 디지털 설치미술 전시회 ‘감각과의 대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Kota Tua 파타힐라 전시장에서 제4회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 전시회 ‘감각과의 대화’ 전시를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했다.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최석영, 김형중, 박승순 등 3명의 한국작가와 아낭 샵또또, 엘리야 누르비스따, 파자르 아바디, 헤리 도노, 리키 바바이 자니뜨라 등 5명의 인도네시아 작가가 참여하여 양국의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교실과 미술 강좌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전시를 기획한 전정옥 큐레이터는 “우리가 작품과 조우할 때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할 수 있으며, 특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감흥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각기 다른 감각들과 소통하며, 체험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직접적인 체험만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덧붙였다.



(학생기자 JIS 김재호)

자카르타 국제학교 (JIS)의 Interscholastic Association of South Asia School (IASAS) 시즌이 왔다.

IASAS란 JIS 를 비롯한 5개의 동남아시아 학교 (TAS, SAS, ISB, ISM, ISKL)가 1년에 한 번씩 각각 예체능 종목을 대표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한 학교에 모여서 경쟁함과 동시에 화합하는 행사이다. 선생님들은 IASAS 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이니만큼 더욱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고, 뽑힌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를 대표하므로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다. IASAS에서도 다른 스포츠처럼 시즌 별로 종목이 나뉘는데, 첫 시즌은 축구, 배구, 크로스컨트리 이 있고, 두 번째 시즌은 농구 수영 럭비, 테니스, 또 다음 시즌은 악기와 토론과 마지막 시즌은 야구 (Softball)와 골프, 트랙과 필드로 이뤄져 있다.

IASAS는 1961년 때 SAS 와 ISB의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학교들이 모임에서 정식으로 IASAS가 개최됐다. 처음에는 운동 시합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 토론, 수학 등도 IASAS의 종목 중 하나로 정해졌다. 또한 아야사스에 선발된 학생들은 개최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국적과 언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홈스테이를 할 때 경쟁자와 함께 머무를 수도 있는데, 이때 경쟁자와 교류하며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지 배워볼 수도 있으며,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도 익혀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지스에서 이뤄지는 종목은 축구이다. 어느 때와 같이 스포츠 시합 때 경기장에서는 학교 대표들의 뜨거운 열기, 열정과 자신의 학교를 응원하는 함성으로 가득찼다. 공이 빠앗길 때마다 아쉬운 탄성이 나왔고 공격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부르는 응원가가, 골을 넣었을 때는 다같이 기뻐하는 환호성으로 넘쳐 났다. 특히 축구 참가팀 중 지스 축구팀은 높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들 간의 강한 협동심으로 무장한 팀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홈경기를 이루는 이번 시합에서는 1등까지 노렸으며, 아쉽게도 3승 1패 2무로 아쉽게 2등을 했다. 3년 동안 지스 대표로 축구팀 선수를 활약했으며, 주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12학년 이태민군은 “지스 축구팀에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운동을 통해서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팀원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엄청난 규모의 국제 경기를 몇년동안 정기적으로 치루며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 나아가 협동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 말했다.

이처럼, IASAS는 학생들에 교육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대회이며, 보다 넓은 견문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어내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우리 학교 대표팀들이 자랑스러운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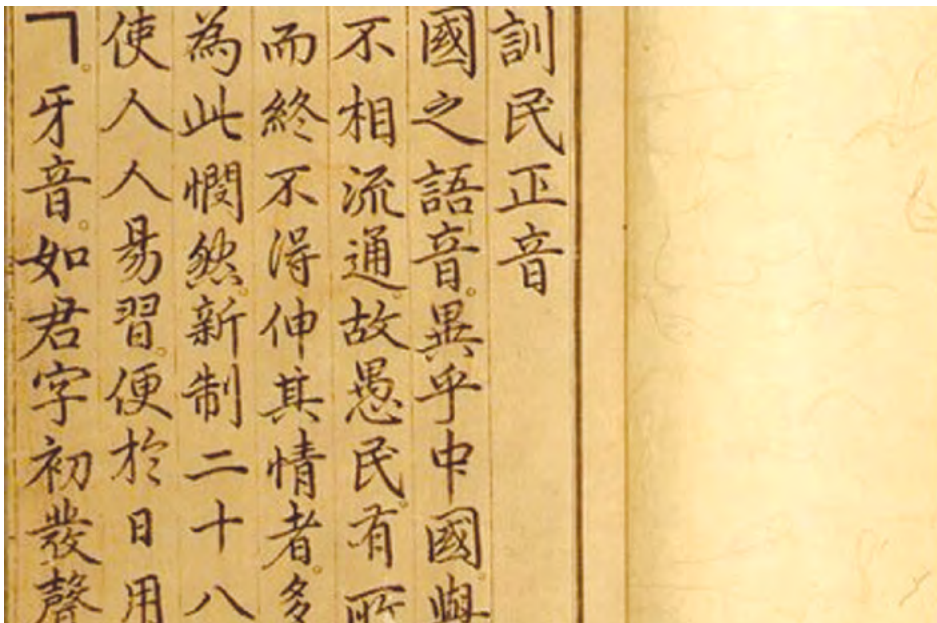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

세계문자 가운데 한글, 즉 훈민정음은 흔히들 신비로운 문자라 부르곤 합니다. 그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정확히 말해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은 진즉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초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는 것을 뜻하니, 한글은 ‘큰 글’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이 직접 서문을 쓰고 정인지 같은 신하들에게 글자에 대한 설명을 적게 한 것입니다. 이 책이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책이 발견됨으로 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을 세운 전형필 선생의 공입니다. 선생은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 책을 샀고 6·25 때에도 이 책 한 권만 들고 피난 갈 정도로 이 책을 지키기 위해 몸을 바친 분입니다. 이 분도 [직지]를 세계에 알린 박병선 선생처럼 우리의 문화영웅입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 있다. 언해본 원문보기

나랏말싸미중국에달아니
 文(문)字(자)와(와)로(로)서(서)르(르)스(스)듯(듯)이(이) 아(아)니(니) 흠(흠)씩(씩)
 이(이)런(런)전(전)초(초)로(로)어(어)린(린)百(백)姓(성)이(이)
 니(니)르(르)고(고)저(저)흥(흥)배(배)이(이)셔(셔)도(도)
 무(무)춤(춤)내(내)제(제)뜨(뜨)들(들)시(시)러(러)퍼(퍼)디(디)
 몬(몬)흥(흥)노(노)미(미)하(하)니(니)라(라)
 내(내)이(이)를(를)총(총)쥬(쥬)하(하)야(야)어(어)엿(엿)비(비)너(너)겨(겨)
 새(새)로(로)스(스)들(들)여(여)툼(툼)字(자)를(를)밍(밍)구(구)노(노)니(니)
 새(새)로(로)스(스)들(들)여(여)툼(툼)字(자)를(를)밍(밍)구(구)노(노)니(니)
 사(사)롬(롬)다(다)히(히)여(여)수(수)빙(빙)니(니)겨(겨)날(날)로(로)부(부)니(니)라(라)
 便(편)安(안)안(안)키(키)고(고)저(저)흥(흥)상(상)루(루)미(미)니(니)라(라)
 便(편)安(안)안(안)키(키)고(고)저(저)흥(흥)상(상)루(루)미(미)니(니)라(라)

훈민정음 어제 서문. 백성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뜻이 담겨 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이유 아직 잘 모르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과거 유산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열이면 열 모두 한글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대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기 때문” 또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므로” 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라서”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들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일 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한글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문자는 그 나라 말만 정확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영어의 ‘f’ 나 ‘th’ 를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한글이 세계 언어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램지(Ramsey) 교수는 한글날에 학생들과 조출한 자축연을 했답니다. 이렇게 멋진 문자가 나온 날을 축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글이 ‘과학적’ 인지 잘 모릅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것도 이같은 ‘한글의 과학성’ 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인류 문자 발달의 정점에서 있는 우리 한글

한글은 그 치밀함과 복잡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인류의 문자 발달사를 간단하게나마 살펴야 합니다. 인류는 알다시피 한자 같은상형문자로 언어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글자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글자를 보아도 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문맹률이 높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西’ 자는 음이 ‘서’ 인 것을 대부분 알지만 이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齒’ 자는 음이 ‘천’ 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일본 문자 같은 음절(syllable)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어도 표음 문자입니다만 자음과 모음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의 ‘加’ 에서 따온 히라가나의 ‘か(카)’ 는 자음과 모음을 분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글로는 ‘ㄱ+ㅏ’ 로, 로마 글자로는 ‘k+a’ 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로마 글자가 더 진보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글과 영어의 진화 정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갑니다.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 만든 자음, 위대한 과학성을 입증해

이제부터 한글의 과학성이 나옵니다. 어떤 외국인이든 대학 정도의 학력이면 1 시간 안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배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외국어를 한 시간 만에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한글의 자음부터 볼까요? 한글의 자음에서 기본 되는 것은 ‘ㄱ·ㄴ·ㄷ·ㄱ·ㅇ’ 인데 국어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아는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자음은 이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획을 하나 더하거나 글자를 포개는 것으로 다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ㄱ·ㅋ·ㆁ’ 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 다섯 개만 알면 다음 글자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자음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발성 기관이나 그 소리 나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ㄱ’은 ‘기역’ 혹은 ‘그’라고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로 ‘ㅇ’ 같은 경우는 목구멍의 모습을 본 뜬 것이지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배우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한 시간 안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까지 생각해 만든 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의 ‘city’는 ‘시티’ 보다는 ‘시리[siri]’라고 발음되지요? 또 ‘gentleman’은 통상 ‘제너먼’으로 발음됩니다. 이것은 t라든가 r, n은 같은 어군이라 서로 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어 글자들은 그 생김새에 아무 유사성이 없지요? 그래서 다 따로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이 글자들이 모두 혀소리(설음, 舌音)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고 같은 군에 모아두었습니다. 즉 ‘ㄴ·ㄷ·ㄷ·ㄷ(르운 반혃소리)’이 그것으로 글자의 형태들을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과학적 원리에 따라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자인 3개의 기호만으로 모음을 표현해

모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복잡한 모음 체계를 어떻게 점(·) 하나와 작대기 두 개(一, |)로 끝낼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으로 가장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 一, |’에는 각각 하늘·땅·사람을 뜻하는 높은 철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간단한 모음 체계로 가장 많은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창조성 때문에 우리 한글은 휴대폰에서도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자판에 한글을 다 넣어도 자판이 남아돌아가니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문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포 450년 후에도 우리 글로 인정받은 한글, 앞으로 더욱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글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글이 국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반포 450년 후인 갑오경장(1894년~1896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기에 어려운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영어 때문에 영 맥을 못 춥니다. 영어는 못 배워 야단인데 한글(한국어)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말과 글은 쓰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한글을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보았습니다마는 한글은 여기서 설명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위대한 문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

최준식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였다. 한국문화와 인간의식 발달에 관심이 많으며 대표 저서로는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등이 있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2016년 세계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미원 인도네시아가 후원하며 자카르타 Taman Menteng에서 진행될 예정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최용기 지부장)는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미원 인도네시아(대상주식회사) 후원으로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00부터 자카르타 따만멘헝(Taman Menteng)에서 “Cerita Bersama(해피투게터)”라는 주제로 세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세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아동인권보호의 중요성 등 아동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아동힘키우기교육의 일환으로 Tetangga Pak Gesang, Jason Ranti, Adithia Sofyan 등 인도네시아 인디밴드와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후원아동들이 콜라보하여 직접 제작한 미니 앨범을 이번 행사 당일 날 공개 및 발매 할

예정으로 후원아동들에게는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를, 대중들에게는 후원아동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보다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앨범 제작 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 인도네시아 인디밴드의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워크샵(모바일 뮤직, 프린트스크린페인팅, 드림캐처), 미니 오케스트라 및 후원아동들의 작품전시회 등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게임 및 체험행사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전했다.



2016년 10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연말 가까워지자 바빠진 이민당국... 단속서 '여권·비자 제시' 요구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 등 여권, 비자 단속과 함께 마약, 성매매, 위조지폐 제작 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소탕에 한창이다.

13일 중앙자카르타 꼬마요란에 있는 디아즈 호텔에서 이민국 직원에 체포된 9명의 외국인들은 카메룬 국적으로 8명은 여권 자체가 없었고, 1명은 여권이 있었지만 9개월이나 불법체류를 했다. 이들은 가짜 외국돈을 보여주며 화학 물질을 바르면 미국 달러가 된다고 사기극을 벌이기도 하고, 코카인 등 마약을 남용 및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7일에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파키스탄인 9명, 중국인 3명, 아프리카인 1명, 태국인 2명, 필리핀인 1명 등 17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국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파키스탄인 가족은 UNHCR(유엔난민기구)가 발급한 서류를 보여주며 망명을 원했으며, 이민당국은 사회부, 외무부, 내무부와 함께 조정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붙잡힌 중국인은 워킹비자가 없이 일을 해 온 혐의로 쯡까렝 지역에서 체포됐다.

20일에는 수마트라 메단에서 필리핀 국적 교사 7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메단 프리뚜라에 위치한 'Prime One School'이라는 사설학교 소

속 교사로, 이민당국 조사 당시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이들을 고용한 학교 측이 비자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인도네시아로 데려와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1일에는 중앙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한 디스코텍에서 모로코 출신 성매매 여성 17명이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성매매 여성들은 입국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관광으로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민당국은 이들이 국제 성매매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서부자카르타 센트럴파크 아파트에도 이민국 직원 10여명이 한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지를 급습했다. 이들은 주말 저녁 8시경 문을 두드리며, "이미그라시 (Imigrasi)" 를 외치고 구둑발로 집 안에 들어와 여권과 끼따스를 요구했다.





가루다항공 기내서 사망한 승객...항공사 책임 다했나?

14일 밤 10시 30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에서 호주 멜버른으로 향하는 Garuda 인도네시아 항공기 A330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공사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대처한 것이 맞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망한 승객은 인도네시아인 중년 남성 록만 수산또(66)씨로, 이륙 약 1시간 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만씨의 부인 린나씨는 당시 승무원에게 산소호흡기 사용을 요청했다. 이어, 승무원이 기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산소호흡기 사용 이후 진정된 록만씨는 약을 복용하고 좌석에 누웠다. 그러나 이도 잠시 1시간 후 다시 상태가 나빠지자 기장이 긴급 착륙을 제안하자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고 록만씨를 살렸지만 록만씨가 돌연 숨지고 말았다.

오전 9시 20분(현지시간) 항공기가 멜버른에 도착한 이후, 록만씨의 시신은 가족과 함께 호주 공항 경찰, 공항당국 직원, 의료진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소속 항공전문가 알빈 리는 15일 현지언론 뎀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루다항공은 파일럿이 왜 무리해서 운항을 계속했는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몸의 이상증세를 밝힌 것은 이륙 후 50분밖에 안됐을 때였다. 기장은 덴빠사르 공항이나 수라바야 공항에 들릴 수 있었으며, 아니면 호주에서 가장 가까운 다윈 공항에 내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기장이 멜버른까지 쉬지 않고 운항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책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2017년 자카르타최저임금 375만 루피아” 요구

노동자들이 29일 자카르타주청사 앞에서 저임금 반대, 바수끼 주지사 반대 시위를 벌였다.

29일 자카르타주청사 앞에 모여든 시위대들은 내년도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올해 310만 루피아에서 65만 루피아 오른 375만 루피아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브카시나 까라왕 등 인근 위성도시보다 적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주지사에 ‘저임금 주지사(Gubernur Upah Murah)’ 라고 외쳤다.

2016년 브카시시(Kota) 최저임금은 323만 7,160루피아, 까라왕군은 서부자바에서 가장 높은 333만 505루피아였다.

이날 2천 500여대의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로 온 자보데따백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MK), 대통령궁, 대법원(MA) 등을 거쳐 오후 5시 반에 부패방지위원회(KPK)까지 행진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조세사면법 철폐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동 시위는 숨버르 와라스 부지 비리 사건, 북부자카르타 해안 매립 사업, 재개발 등과 관련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현 자카르타주지사를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로 번지는 양상도 보였다.

앞서 지난 21일 자카르타 노동단체 AGSJ (Aliansi Gerakan Selamatkan Jakarta)는 자카르타 살렘바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바수끼-자룻 조의 자카르타주지사 선거 출마 등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부자바 27개 시군 2016년 최저임금(안)

1. Kota Banjar – Rp. 1.327.965
2. Kabupaten Cianjur – Rp. 1.837.520
3. Kabupaten Cirebon – Rp. 1.592.220
4. Kota Cirebon – Rp. 1.608.945
5. Kota Sukabumi – Rp. 1.834.175
6. Kota Tasikmalaya – Rp.1.641.280
7. Kabupaten Bekasi – Rp. 3.261.375
8. Kabupaten Kuningan – Rp 1.364.760
9. Kabupaten Garut – Rp. 1.421.625
10. Kabupaten Majalengka – Rp. 1.409.360
11. Kota Bandung – Rp. 2.626.940
12. Kabupaten Bogor – Rp. 2.960.325
13. Kabupaten Tasikmalaya – Rp. 1.632.360
14. Kabupaten Ciamis – Rp. 1.363.319
15. Kabupaten Pangandaran – Rp. 1.324.620
16. Kabupaten Indramayu – Rp. 1.665.810
17. Kabupaten Bandung – Rp. 2.275.715
18. Kabupaten Bandung Barat – Rp. 2.280.175
19. Kabupaten Sumedang – Rp. 2.275.715
20. Kota Cimahi – Rp. 2.275.715
21. Kota Depok – Rp. 3.046.180
22. Kota Bogor – Rp. 3.022.765
23. Kabupaten Sukabumi – Rp 2.195.435
24. Kota Bekasi – Rp. 3.327.160
25. Kabupaten Karawang – Rp. 3.330.505
26. Kabupaten Purwakarta – Rp. 2.927.990
27. Kabupaten Subang – Rp. 2.149.720

2017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UMP)이 335만 루피아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8%가 올랐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2017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을 월간 335만 루피아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주지사령에 27일 서명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규칙의 개정 업계 영향 주시

인도네시아 부동산 업계는 자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가격을 발리와 족자카르타 등에서 인상한 것에 따른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 트리뷴 잠비가 15일 이 같이 보도했다.

호주계 부동산 중개업자 레이 화이트 인도네시아 협회(Ray White Indonesia)의 에르윈 까르야 협회회사는 14일 현지언론 끈판과의 인터뷰에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발리에서는 대형 건물의 판매를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발리는 회사 고객의 약 30%가 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대기업 아궁 뽀도모로 랜드(PT Agung Podomoro Land)와 씨뿌트라 그룹(Ciputra Group)은 모두 “외국인고객의

비율은 낮고,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은 경미” 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류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령 ‘2015년 제 103 호’ 의 시행 세칙에 해당 농지·토지계획부령 ‘2015년 제 13 호 ‘개정령 ‘2016년 제 29 호’ 를 공포했다.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주택 가격을 발리 매물 기준 30 억 루피아 (약 2,390 만원)에서 50 억 루피아로 인상했다.

북부 수마트라, 족자카르타특별주 등에서도 인상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공동주택의 최소 가격을 50 억 루피아에서 30억 루피아로 낮췄다.

인니 루피아, '조세사면' 효과에 6개월 내 최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가 조세사면 효과 기대로 미 달러화 대비 6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27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달러-루피아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12,928루피아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장보다 루피아 가치가 0.74%가량 오른 것이다. 이번 주 들어 루피아 가치는 미 달러화에 대해 1%가량 올랐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한 트레이더는 시장이 루피아 가치가 추가로 오를 것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법을 단행, 일정 기간을 두고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43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도피 자금에 대한 조세사면을 단행했다.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세사면은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주 후반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와 세수 증가, 이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 사실주의 작가 김 영성

작가 김 영성은 작은 것에 무한한 애정을 쏟는다.

근작들에 작은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작품의 명제는 <무. 생. 물>이다. ‘보잘 것 없고’, ‘살아있고’, ‘생명 없는 물체’ 라는 걸 명제로 한 것이다.

작은 티스푼 위에 앉아있는 달팽이, 유리 물컵 안에서 유평을 즐기는 빨간 관상어, 그리고 청개구리...

그는 이것들의 면적을 100~2500배 크기로 확대해서 그렸다.

일찍이 작가는 작은 것들에 연민을 가져오다 2000년대부터는 작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작은 것들에 바치는 헌사(dedication)라 할 수 있다.

평소에 미미한 존재였으나, 어느 순간 눈길을 끌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생명에 대한 외경을 촉발할 때 경이로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컨셉이다.

그가 작은 것들을 등장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문명의 물질화와 더불어 살아있는 생명체 보다는 기계와 같은 무생명한 것들, 요컨대 기능적인 것들을 과대평가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을 제기 하려는 데 있다.

그가 그리는 세계는 작은 것들을 지고의 세계로 격상시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사회의 가벼워진 인간 존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데 뜻이 있다. 그의 시각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작은 미물마저 누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방기하는 우를 범한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으나 속내는 실체를 상실한 미소한 존재이고
없음과 진배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유리용기, 금속수저, 톱니바퀴와 같은 강인한 물질을 등장시켜 작은 생명체들의 지
지체로 삼는다.

작가가 다루는 지지체들은 반사가 큰 것들이다. 빛의 투과와 굴절이 크고 강한 게 특징이다.
견고하고 투명한 유리와 금속은 현대인이 의존하고 있는 광범위한 물질성을 대변한다.
이것들이야말로 현대 기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가능케 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스테인레스 티스푼에 앉아있는 작은 달팽이가 편안한 안락을 누리는 건 현대인이 누리는
물질적 안락을 극적으로 연출한다. 이는 잠시 예약된 극도로 불안정한 안락일 뿐이라는 걸
우화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유리컵의 물속에 관상용 물고기, 톱니바퀴나 스푼에 의지하고 있는 개구리를 빌려서 최후
의 집행유예를 즐기는 현대인의 찰나의식을 보여준다.

작가는 무생한 물질의 차갑고 섬광을 발하는 현란한 표면을 묘사하는데 심혈을 쏟는다.
김영성작가는 이를 위해 매일 밤 수십 자루의 세필들을 써 가며 작은 생명체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투를 벌인다.

글: 권미선 (인니미협회원)



a ini?)

행복한 도전

어디있어요? (Dimanakah itu?)
eo di iss eo yo



김 은 숙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kimpjogia22@gmail.com

지난 10월 16일 가자마다 족자대학(UGM)에서 한국어 토픽 시험이 있었다.

족자한글학교 학생 3명이 시험에 참여하였고 이것은 족자한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시험을 치른 것이다. 그날은 무척 더웠고 나의 가슴은 더없이 뜨거웠다.

왜냐하면 그날 나도 한국어 토픽 시험을 보았다. 한국어 토픽 시험은 해마다 두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이 48회째였다. 재외동포 학생으로서 한국의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한국어 토픽 3급에 준하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시작으로 레벨 1에 도전했다. 한국어 토픽은 레벨 1과 레벨 2가 있는데 레벨 1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고 두 시간 시험으로 다소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였다.

레벨 2 시험은 3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듣기, 읽기, 작문으로 장장 4시간에 준하는 시험을 본다.

그 4시간 시험을 보고 나온 나는 다음에 시험 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하고 한숨을 쉬고 나왔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시험은 내가 알기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와(JIKS)동 시간대에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시험을 보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레벨 1 시험은 9시 30분에 시작하였는데 9시 10분까지 입실을 준비하라 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른 시간에 시험장으로 들여보내고 조금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고 얼마 안 있으니, 시험 10분 전이었던 것 같다. 갑자기 어디선가 정소리가 크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Apa Kabar?)
an nyeong ha se yo

그 소리를 나는 이상야릇한 신비함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 집에 일을 정리하고 나도 다시 시험을 보러 갔다.

12시가 조금 넘어 입실을 했다. 나의 번호표와 이름이 정갈하게 붙어 있는 책상위에 여권과 수험표를 내려놓았다. 대학입시생처럼 가슴이 떨렸다. 또다시 정소리가 들리고 10분후에 시험을 알리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마이크 소리와 함께 아리랑(노래) 음악이 흘러나왔다. 또 다른 나의 야릇한 신비함을 감지하는 순간이었다.

어찌 어찌 시험이 끝났다. 시험장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의 오른쪽 옆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친구는 가자마다 대학교 (UGM) 한국어학과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6급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사실 나는 족자에서 몇 명이나 한국어 토픽 시험을 볼까 했는데 꽤 많은 학생이 이번 시험에 응시하였고 대부분 UGM 한국어학과 학생이거나, 아니면 사나타 다르마 한국어학과 학생이었다.

그들이 나를 보며 시험을 잘 보았냐고 해서 나는 농담을 섞어 시험문제는 잘 보았고 답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한국어 토픽 시험 경험은 오늘 레벨 1 시험을 치른 족자 한글학교 3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험 유형을 알아보고자 응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험에 참가하는 중에 나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첫 번째는 한국어 토픽 시험을 보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과 시험을 보면서 가슴이 18살 어린 나이가 된 듯이 설레었다. 두 번째는 시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가 또 아리랑 노래 소리가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을 불현 중 깨달았다.

나라를 알리는 것은 어찌면 이런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다. 한글을 사랑하는 또 배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학생들,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시험 잘 봤어” “아니 너는” 저희들끼리 묻고, 웃고, 떠든다.

저들이 오늘 치른 레벨 2 시험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사람인 나에게도 어려웠으니까! 그런데도 환하게 웃는 그들을 보며 나의 가슴엔 미소가 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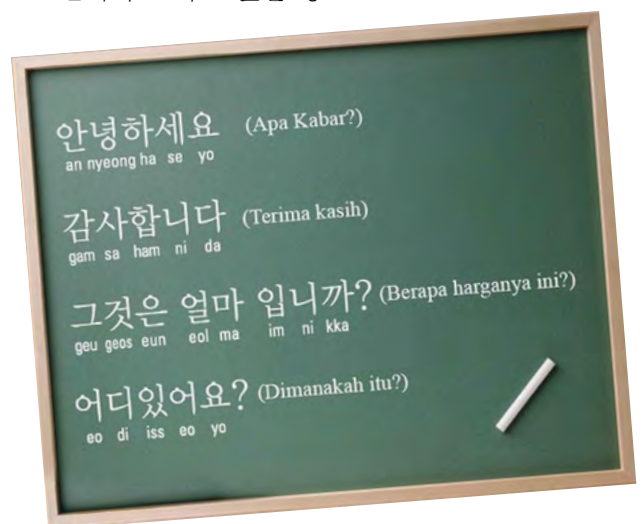
한국 징을 든 남자 도우미는 현지 학생이었다. 곳곳에 한국 이름표를 단 도우미 여학생 들조차도 UGM 학생으로 현지 학생이었다. 재미있는 풍경이 아닌가? 그들이 자칭 한국을 알리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 중에 어느 이는 도우미로 미소를 머금고 시험 안내를 해주었고 어느 이는 징을 쳐주었다.

낮선 생활 속에서 발견한 이 따뜻한 풍경 그 안에는 현지 학생들의 웃음이 있었고, 우리 한국 아이들의 미래가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나의 꿈 많은 선생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어려울지 모른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도 한국어 토픽시험을 보면서 조금 더 자란 것 같다.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한국어 토픽! 재미있는데! 혹시 같이 한국어 토픽 보실 어머니님 없으신가요?

제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재미있고 젊어진 느낌에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행복한 도전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요...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Menikah와 kawin의 차이는?

그리고 **Jodoh, Menikah**는 정식으로 혼인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Selamat atas pernikahan Anda는 쓰지않는 표현이다. **Selamat menempuh hidup yang baru!**(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가 맞는 표현.

예시1) **Setelah 1 tahun tinggal bersama, akhirnya mereka berpisah.** 1년간 동거 후,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동거라는 표현으로 **nikah di bawah tangan**도 자주 쓰인다.

Di bawah tangan은 비공식적이라는 뜻.

예시2) **Musim kawin untuk binatang**(동물의 번식기)라는 표현도 있다.

-**Jodoh**는 인연, 배필을 의미한다.

Jodoh pasti bertemu~ 인도네시아 유명 가수 아프간이 2013년 히트를 쳤던 이별 노래 제목이다. 인연(천생연분)은 꼭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takdir(운명)도 있다.

"jika aku bukan jalanmu

(내가 너의 길이 아니라면)

ku berhenti mengharapkanmu

(내가 너를 원하는 마음을 멈출게)

jika aku memang tercipta untukmu

(만약 내가 정말 너를 위해 태어난 것이라면)

ku kan memilikimu

(너는 나의 것이야)

jodoh pasti bertemu"

(인연은 꼭 만나게 되어있어)

-sakit kepala와 keras kepala/besar kepala의 차이는?

Sakit kepala는 일반적인 두통(pusing), 고민거리가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Keras kepala**와 **besar kepala**는 고집이 세다고 말할 때 쓰는 말로,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들을 살짝 부정적으로 칭할 때 쓰는 단어다.

예시) **Sakit kepala akibat stres, Coba deh Teknik simpel ini.**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있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Jokowi, Jonan dan Arcandra keras kepala tapi kompeten.

***kompeten** 전문의, 경험이 있는

(조코위 대통령, 조난, 아르찬드라는 고집이 세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Kepala ringan?** 그리고 **Ringan tangan?** 가벼우니 나쁘다는 뜻일까?

kepalanya ringan은 ‘머리가 가볍다? 그럼 바보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의미는 ‘이해가 빠름=**pandai, cepat tangkap**’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Ringan tangan**이라는 말은 어떨까. ‘가벼운 손?’ 이는 즉시 행동에 옮긴다, 행동이 재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잘 때린다(**suka memukul**), 금방 감정적으로 돌변하는(**cepat emosi**)’이라는 뜻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예시) **Dia pura-pura bodoh, tapi sebenarnya dia berkepala ringan.**

(그는 바보인척 하지만, 사실 영리한 사람이다.)

Dia ringan tangan kepada semua orang. / Dia ringan tangan kepada istri dan anaknya.

(그는 모든 사람에게 화를 잘 낸다. 그는 그의 처자식을 때린다.)

-**Jangan**과 **Jangan-jangan?** 같은 뜻 아니에요?

Jangan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만. **Jangan-jangan**으로 **janjian**을 반복해 쓴다면 “(미래에)아마도, ~하지 않기를” 이라는 의미가 된다.

예시) **Jangan lembur terus, nanti Anda bisa kecapean.**

(야근을 계속하지 마세요. 나중에 녹초가 되요.)

Hujan deras hari ini, jangan-jangan dia tidak masuk kantor.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그가 결근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그가 결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8. 주말 쇼핑하러 갔을 때 쓸 수 있는 말

마트에서 상품 찾기 - 방향 및 장소 표현을 알아봅시다.

상황1

A: Mba/Mas. Saya lagi cari sampo yang ada gambar kuda.
Ada di sebelah mana, ya?

(저기요. 말 그림이 그려진 샴푸를 찾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B: Corner Sampo ada di pojokan/ujung Corner C. Sampo yang
miss cari ada di sebelah kiri. (Boleh) Saya bantu cari?

*pojok 끝, 구석, 가장자리 / ujung 끝

(샴푸코너는 C 코너 끝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샴푸는 왼쪽 진열대에 있어요.
찾아드릴까요?)

A: O, gitu. Ya, Terima kasi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B: Ikutin saya. *ikutin = ikut + kan

(저를 따라오세요.)

상황2

A: Permisi. Kasir ada di sebelah mana?

(실례합니다. 계산대는 어디에 있나요?)

B: Kasir ada di depan Corner D. Lurus saja ke arah sana, nanti ada
di sebelah kanan.

(계산대는 D코너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쪽 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A: Oke. Makasih, ya. (네. 감사합니다.)



옷 가게나 신발 상점 등에서 쓰는 말

상황1

A: Apa yang paling laris/popular sekarang?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B: Model kayak ini paling laris.

(이런 모델이 제일 잘 팔려요.)

A: Boleh dicoba? / Boleh saya lihat-lihat dulu?

/ Ruang ganti baju di mana, ya?

(착용해봐도 되나요? / 좀 둘러봐도 될까요? / 탈의실이 어디예요?)

B: Ya, Silahkan. / Ada di sebelah situ.

(네, 그럼요. / 저기에 있어요.)

상황2

A: Ukurannya tidak cocok. Minta yang lebih besar.

/ Minta yang lebih kecil.

(사이즈가 안 맞아요. 좀 더 큰 것으로 주세요./ 좀 더 작은 것으로 주세요.)

B: Oke ditunggu ya. Saya coba cari dulu.

(네.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단 찾아볼게요.)

...잠시 후...

B: Maaf. Tidak ada ukuran lain. Sekarang cuman tinggal itu doang(saja).

(죄송해요. 다른 치수가 없네요. 지금 그 것밖에 안 남았어요.)

A: Oke. Tidak apa-apa. Lain kali saya datang lagi ya.

(오케이.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상황3

A: Saya beli sepatu ini untuk hadiah suami saya. Tapi ukurannya kebesaran. Bisa refund gak, ya?

(어제, 제가 이 신발을 남편 선물로 샀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환불 되나요?)

B: Maaf, bu. Kami tidak bisa refund, tapi bisa ganti dengan ukuran yang l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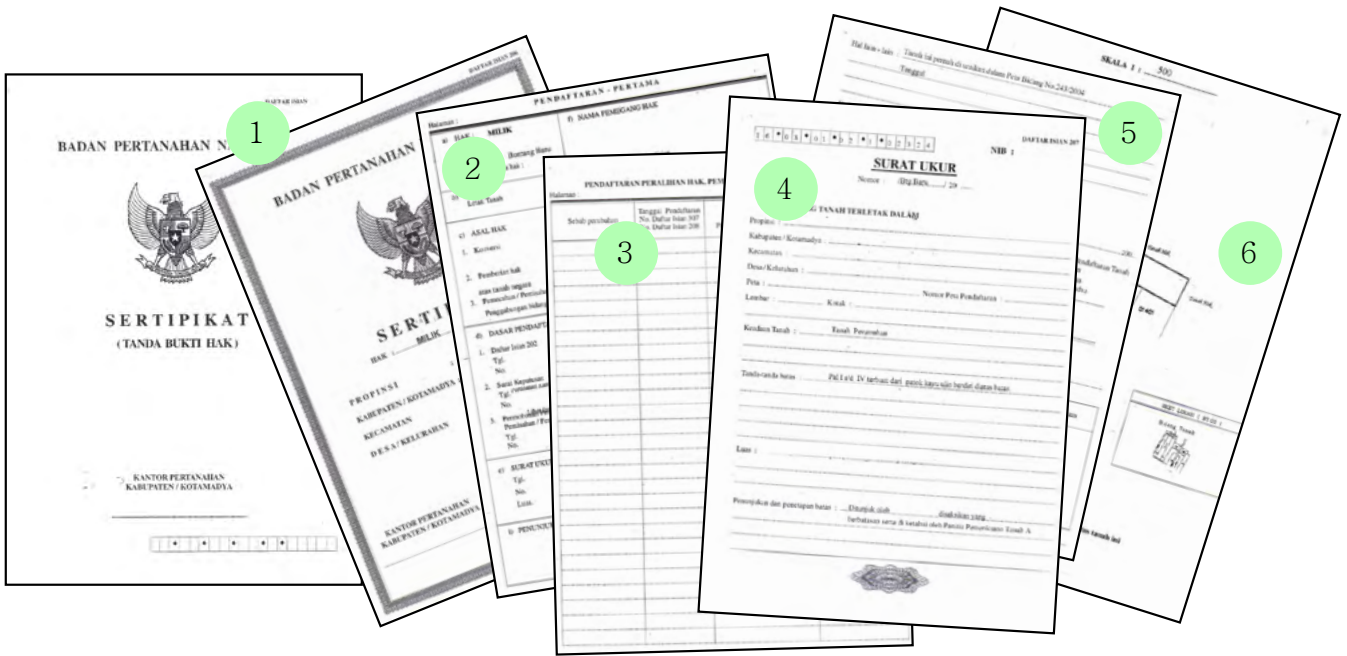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환불이 불가능하고요. 대신 다른 사이즈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A: Kalau gitu saya minta ganti ukuran yang 270mm.

(그렇다면, 270mm로 바꿔주세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 보는 방법



Q1. 저희 회사는 Subang군에 위치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회사 창고 추가 건축관계로 회사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의 모양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표지면 그림부터 다릅니다. 위조 등기부가 아닐까요?

A : 꼭 위조 등기부 등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독립후 현재까지 3개 정부 기관에서 시기적으로 구분된 3개 모양의 토지 등기부를 발급 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두번째는 시기에는 내무부 산하 토지국장 그리고 세번째로 현재까지 국가 토지청에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등기부의 겉표지(Cover)에는 아무 그림이 없으며, 두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에는 둥근 지구의 위에 나선(Bola Dunia)이 있는 그림이 있으며, 세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는 가루다 문형(Symbol Burung Garuda)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 토지 등기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 등 권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청에 가지고 가면, 반드시 먼저 새 토지 등기부로 새로 변경 발급 후 그 다음에 토지상 권리 변경이 진행됩니다.

Q2. 저는 Pondok Indah Apt에 살고 있는 김갑부입니다. 그런데 Apt 등기부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공장의 토지 등기부는 왜 색상이 다른니까?

A : 예, 토지상 등기부 색상은 녹색이며 APT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는 분홍색입니다. 11월호 에서는 토지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만약 일정 토지 위에 공장이 건축되어 있다면 토지청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Sertipikat)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 건물에 관하여서는 해당 토지 관할 지방정부(시/군)의 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통합민원국)에서 발급한 IMB (Izin Mendirikan Bangunan / 건축허가서)를 보셔야 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Dinas Tata Ruang(도시 계획국)에서 발급 하였습니다.



SERTIPIKAT
(TANDA BUKTI HAK)

Tips 1.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은 표지와 6개의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 (1) Judul Sertipikat (토지의 관할 행정 구역 및
- (2) Pendaftaran Pertama (대상 토지의 등기부 번호, 지번, 면적, 원본 등기의 소유자 등)
- (3) Pendaftaran Peralihan Hak, Pembebanan dan Pencatatan Lainnya (소유권 변경관계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표시)
- (4) Surat Ukur / 이전에는 Gambar Situasi (토지 측정관계 기록)
- (5) Tanda Tangan Pejabat (토지청의 등기부 작성관련 관리 이름 및 서명)
- (6) Peta (해당 토지 위치 관련도)

참고: <http://yoghaken.blogspot.co.id>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민법(10)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지난 호에 이어

11.2. 계약의 적법조건

민법 제13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적법조건은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상 4가지 조건이다. 계약이 상술한 4가지 조건에 미달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다. 상기 4가지 민법상의 계약 적법조건 이외에 법정 계약 적법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법인은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기 및 국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1.2.1.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11.2.1.1.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i)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ii)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11.2.1.2.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11.2.1.3. 계약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해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11.2.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11.2.2.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야 한다.

11.2.2.2.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자격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11.2.3.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하며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약목적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2.4.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

11.2.4.1.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 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성매매계약, 마약매매 계약, 도박 계약, 장물 매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차명투자 계약, 부동산 차명보유 계약,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테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11.2.4.2. 계약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3. 계약법의 원천

계약법의 법원은 민법이외에 상법, 불공정거래 금지법, 건설업법, 분쟁해결 중재법, 혼인법, 국제협약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4호 등 많은 법률이 있다.

11.4.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법의 근원인 민법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며, 언제부터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민법 제1320조에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네 가지 설이 있다.

11.4.1. 수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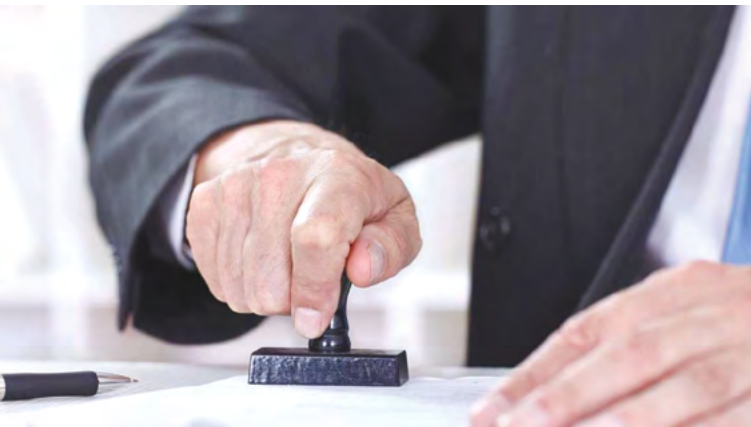
이 설에 의하면 오퍼하는 측의 오퍼를 상대 측이 수락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받은 오퍼장에 오퍼를 받은 측이 서명하면 막 바로 계약이 발효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퍼를 수락하는 측이 서명을 하고 오퍼를 낸 측이 오퍼에 동의한 측의 서명이 된 오퍼장을 받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11.4.2. 통보설

통보설은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동의한 사실을 오퍼한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오퍼를 한 측이 통보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1.4.3. 인지설

오퍼장을 받은 상대측이 오퍼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이다.



11.4.4. 동의 확인설

오퍼장을 보낸 측과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상호 직접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11.5. 계약의 형태

대별하면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이 있다.

모든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강제 구속력이 있으며 위약 시에는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서면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1.5.1. 일반문서 계약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형태이다. 일반계약의 특징은 계약된 내용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제삼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삼자가 일반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면 계약 당사자는 제삼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일반계약서를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 공증효과가 있는지 공증효과 유무를 질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바 일반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체결하고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것이지 당사자에 대한 진위, 계약 내용의 적법 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일반계약을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일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5.2.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을 증인으로하여 계약하는 계약형태이다. 공증인이 계약당사자들의 신분 및 친필을 확인했다는 계약이다. 공증인은 내용에 관하여는 간여를 하지 않는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11.5.3. 공정증서 계약

11.5.3.1. 공정증서 계약의 특징은 공정증서 작성관이 계약 당사자의 신분, 자격,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에 저촉 여부 및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 후에 체결한다. 공정증서 계약은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공정증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의무가 있다. 계약당사자들의 자격(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 작성관(공증인, 토지거래문서 작성관, 면장 등)에게 미리 보내고 공정증서 작성관이 공정증서 양식에 맞추어 계약서를 새로 준비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증서 작성관 면전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은 공정증서 작성관이 보관하고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은 없고 공정증서 작성관의 서명만 있는 공정증서 계약서를 제공한다.

11.5.3.2. 특정한 계약,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등은 일반계약이나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정증서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 형태이나 경비가 다른 형태에 비하여 고가이다. 공정증서 작성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매매증서는 통상 매매가액의 약 0.5%, 기타 채권채무 관련 공정증서는 계약가액의 약 0.1%선이다. 인도네시아 제도 및 법규에 밝지 않은 외국인은 공정증서 계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11.5.3.3. 일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총을 개최한 것처럼 주총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주총회의록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경우를 왕왕 보는 바, 이는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범죄에 해당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 불리해진다. 형법 제26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죄는 징역 최장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SUARA MERDEKA

Perekat Komunitas Jawa Tengah



지역한인회소식

Pemerintah Kota Semarang

Semarang Korea Festival 2016



26th November 2016

Start at 3 p.m

UTC Hotel Semarang

(Gedung UNNES Jl.Kelud Raya No.2 Smg)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Dance
Competition**

**Singing
Competition**

**Hangeul
Competition**

*K-Food & Bazaar (Pakaian & Tas) | K-Photo Booth |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 Hanbok (K-Fash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Linda (024-76482020, 082134361515)
Ria (081327141897)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Semarang-Central Java, Indonesia

@semarang_koreafest_2016 SemarangKoreaFestival



자카르타 한식당 '맛지도' 탄생



해외한식당 자카르타협의체(회장 정재익, 이하 한식당 협의체)는 자카르타 한식당 '맛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게 됐다.

한식당 협의체는 작년 12월말 한국 한식재단으로부터 9개 나라 14번째 협의체로 인가 받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식 알리기, 한식 세계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맛지도 제작은 자카르타 관광청(Puji Surono, S.Sos, M, Si), 한국문화원(김석기 문화원장), 한국관광공사(오현재 이사장), 한인회(양영연 회장)의 후원과 인도웹(최석일 대표)의 기획과 디자인 작업을 통해 약 10개월 기간 동안 작업한 결과이다.

금년도 사업 중 하나인 SNS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여하여 맛지도, 한국문양의 기념품, 한국영화 바우처 등의 상품을 수령할 수 있고 11월부터 한식당 협의체 약 40여개 정회원사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재익 회장 1문 1답

Q. 해외한식당 자카르타 협의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본 협의체는 2015년 12월말에 한국 한식재단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한식 알리기, 한식 세계화를 목표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자카르타 근교 약 100여개의 한식당 중 70여개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올 해 외국인 대상의 맛지도 사업과 SNS 홍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맛지도 제작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A. 이번에 제작한 맛지도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당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청과의 협조를 통해 공항과 유명 관광지 등에 배포가 될 것이고 함께하는 SNS 이벤트의 상품으로도 배포가 될 것입니다.

2차 버전은 외국인과 한인을 포함한 한식당과 한국 음식을 위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Q.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금년도는 사업 초기년도 이어서 정회원과 임원 구성, DB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한인과 회원사 대상의 www.kfood.or.id 홈페이지 운영, 현지인 대상으로 Facebook과 Instagram을 통한 홍보, 인도네시아 관광청과의 MOU 추진, 각종 한류 행사에 K-Food 시식 행사 지원, 최근 반딧민 한인회와 함께 수낫탄 마살(Sunatan Massal) 행사에 한국 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A. 설립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한식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맛지도와 SNS는 순수한 K-Food 차원을 넘어 K-Culture를 알릴 것이며 인도네시아 특성상 SNS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Rumah makan Pagi Sore ... Cipete점을 찾아서

서부 수마트라 주 미낭까바우(Minangkabau) 지역에서 유래된 다양한 음식을 칭하는 빠당음식으로 유명한 Pagi Sore(빠기소레)음식점을 소개한다.

빠당음식은 른당 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른당은 빠당음식의 상징이다. 다양한 전통향신료를 사용하여 5~6시간의 긴 조리시간이 특징인 른당, 이곳 빠기소레의 른당은 다른 빠당음식점과 다르게 7~8시간의 긴 조리시간의 의해서 고기의 육질이 부드러운 편이며 짭잘하고 달며 약간 매운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닭요리 ayam pop, ayam bakar, ayam gulai 뿐 아니라 soto Padang과 sate Padang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Cipete점 빠기소레는 넓은 공간의 테이블당 비교적 많은 서버들이 배치하고 있다. 워낙 인기가 좋은 빠당음식점이므로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갈 때 까지 비교적 테이블 회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본다.

원래 빠당음식점의 특징은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직원들이 많은 반찬 그릇을 한꺼번에 내놓아 놓고 손님은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 당연히 계산은 인분/그릇별로 계산이 된다.

타 빠당음식점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 13만 루피(2명 기준). 빠기 소레는 자카르타에 4곳의 지점이 있다. 자카르타 본점인 Cipete를 비롯 Rawamangun, Cempaka Putih, Kalimalang.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단체 손님 방문시 예약 필수이다.

가끔은 짜고 단 인도네시아 양념을 즐기며 더운 이곳에서 입맛을 되살려 보는 건 어떨런지...

주소: Jl. Cipete 2 No. 1, Fatmawati, Jakarta.
연락처: 021 766-7000

글: 이승진(한인회 간사)





Indonesian Heritage Lectures by Prof. Yang, Seung Yoon

<명사초청 강연회> 양승윤 교수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나라인가?"



"Pemahaman Tentang Konflik
di Semenanjung Korea"

헤리티지 도서관

2016년 10월 29일(토) 10:00~12:30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انش션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후원: 한국문화원, 재인니 한인회, 문예총 10:00 - 12:00 31-October 2016

Sponsor by Korean Cultral Center/ Korean Association /
Korean Indonesian Culture Study



지난 2016년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죠코 위도도 대통령을 환영하는 청와대 만찬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나라이고, 한국형 초음속 훈련기와 잠수함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라면서 수교(1973년) 후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발전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긴밀하게 소통하며, 67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국의 미래학 분야를 개척한 이한빈 교수(1926-2004)는 1960년대 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임 시 향후 50년 내에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주변의 4강에 버금하는 동아시아의 강국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의 각별한 우방관계를 주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극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제3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나라다. 지속적인 대 인도네시아 관계증진을 통하여 남북관계 돌파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대사와는 별도로 남북한 분쟁 해결 정부특사(Nana Sutresna)를 두고 있던 이 나라는 세계 4강의 유화정책 대상국인 동시에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꼽는 우방국이다.

경제협력분야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은 긴밀한 상생(相生)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양질의 노동력·넓고 역동적인 시장성과의 접목이라는 원론적인 경험관계를 넘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동일한 수준

으로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킬 것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점에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한 나라의 하나이다. 이 나라는 한류문화를 통해서 한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다소 과도하며 때때로 무모한 목표 의식과 경쟁심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금 모으기 운동, 기능올림픽의 연패,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세계적인 한류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 등에 매료되어 있다. 한류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우리도 한국만큼 할 수 있다” 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나라 2억 5천만 명(2015년) 국민 중 상위 20퍼센트(5천만 명)의 총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과 같다. 한국과 함께 G20국가군에 속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 경제전문기관의 향후 전망은 우리나라 보다 낙관적이다. 우리의 1/2 수준인 이 나라의 국민 평균 연령이 모든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교대국이다. 비동맹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나라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다. 킬링필드(killing field)

의 캄보디아 내전을 평화체제로 대체하였으며, 베트남 등 4개 후발 아세안국가를 끌어들이어 하나의 아세안(ASEAN 10)을 완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동남아에서 미중(美中) 두 강대국의 세력균형 조정자이며, 중일(中日)양국의 적극적인 유화정책의 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문화대국이기도 하다. 오랜 서양 문화권과의 교섭으로 인하여 동양문화권(국가주의와 공동선)인 이 나라는 폭넓게 서양문화(실용주의와 개인주의)를 포용하고 있다. 동서 문화권의 장점을 고루 보유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신실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외형상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이 나라는 정



교일치(政教一致)의 정치적 이슬람 대신 이슬람의 만인평등을 모토로 하는 ‘사회적 이슬람(Memasyarakatkan Islam)’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이슬람국가로 보고 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50대 주부가 가장 행복한 나라다(조선일보). 또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 발전해 가는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표본이 될 수 있는 한 나라다.

양승윤(외대 명예교수 / 동남아학)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무료 해설

제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유물 해설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장소...Jl.Merdeka Barat No.12 Museum Gajah (코끼리 박물관) 모나스 광장 근처
 일시...2016년 11월 19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제 41차 헤리티지 탐방 반둥조각 공원 안내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탐방지: NyomanNuarta Sculpture Park
 회비 : 회원 30만 루피아 비회원 40만루피아 (입장료 가이드 비용 점심 식사 포함)
 비회원은 헤리티지 행사에 한번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웹과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신청시 해외 여행객/ 인니 체류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헤리티지 밴드에서도 신청받습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지난 9월26일 인도네시아 국방어학원 한국어 수강생(현역 군인)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어학원 안국연수 후원금

※ 가나다순

번호	성명	회사명	후원금
1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10,000,000
2	김주철	STAR CAMTEX	10,000,000
3	신규태	INDO SUNG IL JAYA	10,000,000
4	장근원	TRIPILLAR MEDIS JAYA	10,000,000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 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K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는 생활정보란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자 합니다. 전화번호 게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및 업체는 11월, 12월 두 달간 한인뉴스로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Telp. 021-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교(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내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기쁨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퀴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존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짜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ACCREDITED ACSIS, edexcel Approved Centre, QUALIFIED TEACHERS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0811 980 500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인력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디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이츠클(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 **본 점(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0816-873-176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HP.0816-1390-333
 Tel.021-7278-8327 HP.0888-110-2022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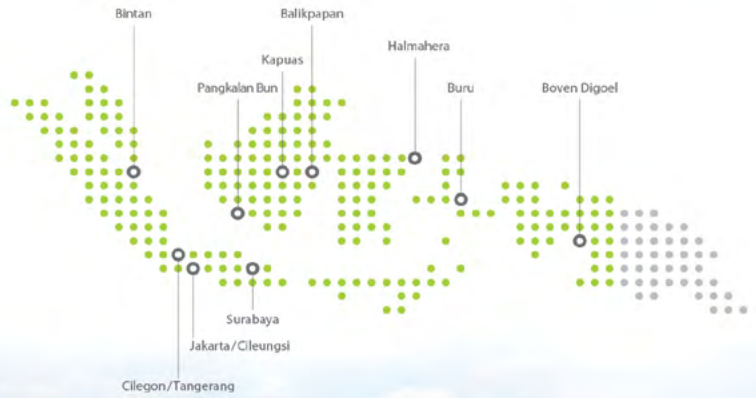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지역한인회 주소록

2016년 10월 현재

번호	지역	직위	성명	휴대폰
1	발리	회장	안 복 희	0813-3808-6990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부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현재 공석	
7	동부자바 수라바야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정 상 원	0812-3373-8798
		총무	박 한 진	0813-5274-8703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 (스마랑)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국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	회장	박 병 엽	0821-3352-638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	회장	박 상 규	0812-2523-7001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 반든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 솔라웨시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HYPERMARKET (14 STORES)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WHOLESALE (27 STORES)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p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SUPERMARKET (2 STORES)

JAKARTA: La Codefin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